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제1227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규모 부실 삼성重, 사상 첫 희망퇴직

2분기 1조5500억 적자… 최대 1000명 감원 전망

이르면 주말 공지…임원 30% 정리 조직개편 추진도

지난 2분기 1조548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삼성중공업이 197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올해 조선업계에서 최대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 대상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사전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희망퇴직 실시를 직원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장급에 한정하지 않고 과장, 차장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삼성중공업에서 최대 1000명이 감원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해양플랜트부문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하면서 지난 2분기 창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잠재 부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2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검토했다. 당시 12년 만에 그룹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을 받은 뒤 희망퇴직이 추진됐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는 대규모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희망퇴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희망퇴직을 실시하기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1일 임원 퇴직 인사를 단행했다. 퇴직 임원은 전체 임원의 30% 수준인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임원 퇴직 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의 인력 감축은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1500명의 인력을 내보냈다. 2분기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도 부장 이상 직급자 13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일 회사 간부 40%를 교체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에서는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3000여 명이 실직할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朴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방중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도착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리커창 총리와 면담한다. ▶관련기사 4면 뉴시스

30대그룹 1년간 늘린 일자리 금융권에서 2년 동안 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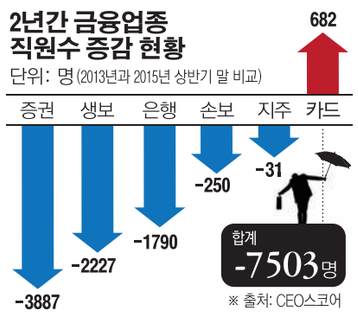
증권업종서만 3900명 감원

금융사 68곳서 7500명 줄어

최근 2년 사이 금융권에서 75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종에서만 4000명가량이 감축됐다. 은행권과 생명보험도 각각 2000명 안팎이 줄었다. 6대 금융업종 가운데 카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감원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6대 주요 금융업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금융사 68곳의 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직원 수가 18만4228명으로 2년 전보다 7503명(3.9%)이 줄어들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생명이 1300명 넘게 줄어들어 단일 금융사로는 최대 인원 감축을 기록했다. 국민은행도 1000명 넘게 줄였다. 조사대상 68개 금융사 중 43곳(63.2%)이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증권으로, 6월 말 기준 직원 수가 3만1386명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3887명이나 줄어들었다. 10명 중 1명꼴인 전체 직원의 11%가 짐을 싼 셈이다.

안철우 기자 acw@

삼성, 학점제한 철폐

하반기 공채 7일부터 접수

삼성그룹이 올 하반기 공채부터 3.0으로 제한했던 학점제한을 없앤다.

삼성은 2일 채용 홈페이지(careers.samsung.co.kr)에 이번 공채에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FAQ)을 올리고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입사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3급 신입사원 공채에서 기존의 학점제한 기준(3.0 이상/4.5만점)을 2015년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직군별 영어회화 기준은 유지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中 제조업지수 3년만에 최저

또 흔들린 글로벌 증시

다우 2.84% 급락…유럽 3%대↓

코스피도 장중 1900선 붕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다.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1일(현지시간) 3%에 육박하는 급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2.84% 급락해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S&P500지수는 2.96% 하락해 지난 5월 고점을 찍은 이후 10% 이상 빠지며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나스닥지수는 2.94%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률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유럽증시도 2~3%대의 급락세를 기록했다.

앞서 마감한 일본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3.84%, 홍콩증시의 항셍지수는 2.23% 각각 급락하고, 위기의 진원지인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1.22% 빠지는 등 아시아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도화선은 중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지난 2012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증시도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며 5거래일 만에 또 다시 1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5.21포인트(0.79%) 하락한 1899.02를 기록 중이다. 1886.14(-1.47%)에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지만 1900선을 밑돌고 있다.

배준호·김희진 기자 baejh94@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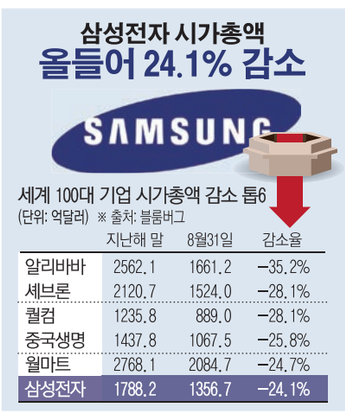
삼성전자 시총 감소율 최상위권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해 시가총액 감소율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8월 31일 기준)은 1356억 달러(160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788억 달러·210조원)보다 작은 수치다.

올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감소율은 24.1%로,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6위다.

정유현 기자 yhssoo@



자산운용사 2분기 장사 잘했네

국내 자산운용사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대폭 개선됐다. 전반적인 실적 호조 속에 적자 회사 수도 줄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1484억원으로 전 분기(885억원) 대비 67.7%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6월 말 기준 전체 87개 자산운용사 중 17곳(20%)이 적자를 봤다. 전 분기 26개사가 적자를 본 것과 비교하면 9개가 줄었다. 13개 회사가 흑자전환했고 4개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다.

정다운 기자 gamja@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지구촌 농업·농어촌 교육을 선도하는 글로벌 지식교류의 장

농어촌 국제교육교류센터(RC-IEEC)

농업 · 농어촌분야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지식정보센터 구축과 상호교류를 통해 국가 및 관련기관의 거버넌스 확립과 능력배양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어촌 국제교육교류센터


게스트하우스


글로벌 연구동

• 기공식 | 2015.09.01(화) • 개관 | 2017. 01월

한국농어촌공사 RC-IEEC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xchange Center | Knowledge Sharing For Better Rural Community

조선업계 '짜낼건 다 짜낸다'… 최대 1만명 짐 쌀수도

사상최대 구조조정 임박

자산매각·조직개편 따른 인력감축
조선3사 구조조정 협력사까지 여파
현대重 정몽일 회장 퇴진 시작으로
삼성重·대우조선 사장단 교체 전망
오너家부터 고위직까지 예외는 없어
올 해양플랜트 수주 27% 감소 전망
뼈를 깎는 쇄신에도 실효성은 의문

한국 제조업을 견인한 조선산업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인력 감축부터 조직개편, 자산매각까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고빗사위를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력업체까지 1만명 일자리 잃어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이들 회사의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조선업계에서 올해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직원 수는 작년 말 2만8291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만6826명으로 1465명(5.2%) 줄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막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해 작년과 견줘 아직까지 인력 변동은 크지 않다. 그러나 두 회사를 합쳐서 적어도 1500명가량이 올해 회사를 떠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협력업체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박의 건조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상 하청업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그러나 업계에 사상 최악의 위기가 덮치면서 하청업체부터 잘려 나가고 있다. 작년과 올해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48곳이 폐업했으며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너가까지 물러날 정도의 비상경영 =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기업금융의 정몽일 전 회장이 퇴진한 것도 조선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8남으로 2000년부터 현대기업금융을 맡아 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금융 계열사의 재편을 단행하면서 정 전 회장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정 전 회장은 현대가 2세 중 2003년 작고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역시 잇따라 고위직을 물갈이하고 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올해 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고문을 맡아 왔다. 고 전 사장은 회사의 대규모 부실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지난달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이번을 계기로 대우조선해양이 고문직을 없앨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연말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에서 박대영 사장이 교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그룹이 성과 위주의 인사를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고위직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빅3 구조조정, 실효성은 의문 = 조선업계가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의 눈길이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청계천 사옥과 골프장, 연수원을 운영하는 계열사 에프엘씨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 회사는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업황도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7월 전 세계 누적 상선발주량은 1억66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나 감소한 수치다.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된서리를 맞은 조선업계가 최근 상선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발주량 급감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의 발주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재천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선 빅3의 해양플랜트 수주는 향후 1~2년 잘해야 150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들의 올해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최소 2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지난달 31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구본익 성동조선 대표이사 직무대행(오른쪽부터)이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경영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산은 삼성重·재무는 輸銀
'성동조선 정상화' 역할 분담

수출입은행과 삼성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성동조선해양을 재무, 인사와 생산, 영업을 각각 담당하는 협력경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위탁경영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 코가 석자'인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 전체를 끌어 안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입은행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성동조선 위탁경영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성동조선해양 경영협력 협약 체결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기간 4년+필요시 합의하에 3년 연장 △삼성중공업이 영업, 구매, 생산, 기술부문 지원 △수출입은행이 인사, 노무, 재무 등 경영관리 전반 담당 등이다. 이는 당초 논의된 위탁경영과는 다소 다르다. 삼성중공업은 생산과 기술 등 영업부문에만 지원함으로써, 성동조선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덜어냈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삼성중공업은 협약서 내 주요 역할을 기술 노하우 전수와 건조물량 확보 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위탁 아닌 경영협력 협약
이달말 유동성 1차 고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인수 합병 여부는 이번 계약에 거론되지 않았다. 이덕훈 행장은 "일단 성동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면서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인수·합병한다고 제안하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다시 찾아올 성동조선의 유동성 위기다.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성동조선의 추가 수주 여부에 따라 2000억~3700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추가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동조선의 유동성 위기는 9월말쯤 도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행장은 "연내 있을 유동성 부족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꿔 내년부터 추가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노조 때문에… 더 몸살 앓는 조선사들

적자쇼크 나몰라라… 4일 '현대重'·9일 '빅3' 줄파업 예고

임금·수당 인상에 고용안정 요구
현대重 노사 17차례 접촉 '평행선'
매출 21조 규모 울산 사업장 스톱

상반기 5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조선 빅3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4일 4시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2차 파업이다. 현중 노조는 앞서 지난달 26일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1차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파업 답례금' 논란이 일었던 파업 참가 조합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통과시켰다. 노조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평균 기본급의 7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다. 주요 공정 소속 조합원이 파업하면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 파업으로 현재 울산지역 사업장 조업이 특수선사업부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태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21조743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41.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임협에서 현중 노사는 17차례 만났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름휴가 직후 주 3회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등 집중교섭 기간이 시작됐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임금 동결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안전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오는 9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9개 조선사 노조연대가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국내 9개 조선사 노조 대표들이 지난 2월 결성한 협의체로, 지난 5월 30일 경남 거제에서 처음으로 전국 조선소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3634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른 조선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은 3조751억원의 적자를 냈고, 삼성중공업은 1조52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늘었지만… 노사정 테이블 '평행선'만

'노동개혁' 핵심쟁점 시작부터 삐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30%를 돌파했다. 정부가 미도입 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도입기관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정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구분	①도입안 마련 단계		②노조동의 단계		③시행 단계
	초안 마련	도입(안) 확정	노사 협의	협약 타결	이사회 의결
공기업	1	1	7	–	21
준정부기관	17	5	24	–	40
기타공공기관	108	31	24	2	35
계	126	37	55	2	96

※출처: 기획재정부

지난달 기준 316곳 중 96곳 도입
8월 한달새 한수원 등 84곳 늘어
임금 불이익·경영평가 점수 반영
정부 고강도 압박에 도입 급물살
노사정 간사회의 40분만에 파행
"임금피크제, 청년 신규채용 도움"
"연령 대신 소득별…고통 분담해야"
보수-진보 측 입장도 팽팽히 맞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96곳(30%)이다.

이는 7월 말 12곳에서 한 달 새 84곳 늘어난 수치로 정부 예상보다 빠른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원이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대형 공기업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를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리고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부터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여전히 노사정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30%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1일 오전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대화가 재개된 지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를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을 고수해 논의 자체가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가 9월 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 △통상임금 범위 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사정 대화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전문가와 진보 전문가의 의견도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놓고 시각차가 컸다.

보수 측인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중장년 근로자에게 60세 정년까지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신규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는 정년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며, 중장년 이후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보 측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임금피크제는 55세를 정점으로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에 근거한 것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보다 소득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인원은 늘어나는데 인건비 총액은 동일해 고령자 연봉이 6000만원일 때 청년 연봉(3000만원)은 고령자가 만들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직원들이 분담하라는 조기퇴직 유도형"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이며 민간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중손실 문제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솔선수범 못하는 고용부 산하기관

이기권 장관의 잇단 독려에도 12곳 중 5곳 도입… 절반 안돼

상당수가 60세 이상 정년연장
"임금만 깎자" 공감대 못얻어
정부 제도설계 미비점 드러나

노동시장 개혁의 주체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정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316개의 공공기관 중 96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7월 말까지 도입 기관은 11곳에 불과했지만 한 달여 만에 85곳이 새로 참여한 것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국토교통부 산하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효과가 컸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인 각각 23곳, 13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주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전체 10곳 중 대부분(8곳)이 도입을 완료해 눈길을 끌었다. 해양수산부도 1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7곳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고용부의 산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전체 산하기관 12곳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곳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마저도 인원이 많은 주요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공단 등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월 "공공부문부터 상생고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유관기관장 14명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제도 및 인식,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 민간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달라"고 주문했지만 이 같은 그의 요청이 무색해진 셈이다.

이는 이미 내년 정년 60세 법제화와 고용부 산하기관은 정년 연장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정년 60세가 일찍 도입된 경우가 많다. 가장 인원이 많은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2013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정년 60세를 도입했고, 한국폴리텍대학은 정년 60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해 실시 중이다.

이 때문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상황에서 임금만 삭감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나머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들의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의 영향권에 놓여 있어 노사간에 임금조정 폭 등을 놓고 이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노사합의를 이뤄낸 기관도 '숙원사업 해결' 등의 당근책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 기준대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임금삭감률이 너무 커져 노사간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총액 인건비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임금까지 깎아야 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제도 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단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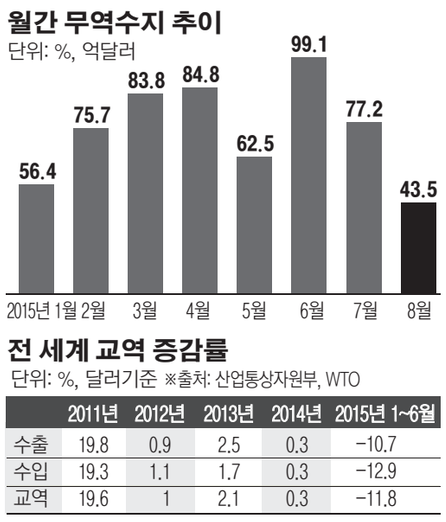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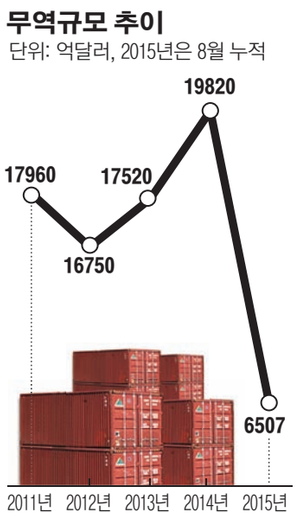
경고등 켜진 수출…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남은 4개월 악재만 쌓였다"

유가상승 불투명·中경기 불안…
하반기 수출도 전반적 부진 예상
정부는 "상반기보다 호재 많아"

월간 수출액 400억 달러 밑으로
2011년 2월 385억 달러후 처음
올 누적교역량 6507억 달러 그쳐
예년보다 90억 달러이상 부족





전 세계 교역 증감률

단위: %, 달러기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WTO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월
수출	19.8	0.9	2.5	0.3	-10.7
수입	19.3	1.1	1.7	0.3	-12.9
교역	19.6	1	2.1	0.3	-11.8

브레이크 없는 수출입 감소세에 지난 2011년부터 수성해 온 '연간교역 1조 달러' 금자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국제유가 하락, 엔저, 중국 경기부진 등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8월 수출액은 6년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나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하반기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부진의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자신했던 5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잠정)은 393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7%나 줄었다. 월간 수출액이 4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2월 385억 달러 이후 처음이다. 감소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다.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크게 줄어 349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로써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교역액은 650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한 후 지난 4년간 8월까지 평균 6600억 달러 안팎의 교역액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90억 달러 이상 부족한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 하락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 둔화 등 수출에 부정적 대외변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큰 폭의 수출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으로의 수출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교역 1조 달러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전문가들도 세계 교역 부진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혜정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상반기에도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난 2분기 매출은 7.7% 하락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541억 원으로 확대됐다.

유화업계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또다시 곤두박질치는 국제유가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침체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작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매출 65조8757억원, 영업손실 2241억원을 기록, 1977년 이후 37년 만에 적자를 냈다. GS칼텍스, 에쓰오일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들도 실적이 줄하향했다.

문제는 수출이 세계 교역량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들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 부진은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세계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영 전략을 보수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효진 기자 js62@

무역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불투명한 데다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부정적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 연구위원도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다소 호전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예상되고 수입은 수출 부진에 따른 중간재 수입 둔화와 원자재 수입 감소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할 전망이다"며 교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윤갑석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교역 1조 달러 달성 가능성과 관련 "8월까지의 교역규모가 정확히 66%, 3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 "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호재 요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전자·자동차·정유·석유화학〉

電·車·油·化 "대책이 없다"

수출주력업종 '전전긍긍'…보수경영 선회 불가피

7월 경상흑자 101억 달러
4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여행수지 7년만에 최대 적자

산업계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 전선에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 주력 업종인 전자·자동차·정유·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자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 LG전자는 글로벌 1, 2위를 다투며 세계 가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분기 유럽과 신흥국의 환율 영향으로 각각 8000억원, 6000억원에 가까운 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는 수입차의 파상 공세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악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 판매량이 385만2777대로 전체 판매 목표(820만 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쌍용차는 신차 '티볼리' 효과에도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난 2분기 매출은 7.7% 하락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541억 원으로 확대됐다.

유화업계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또다시 곤두박질치는 국제유가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침체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작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매출 65조8757억원, 영업손실 2241억원을 기록, 1977년 이후 37년 만에 적자를 냈다. GS칼텍스, 에쓰오일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들도 실적이 줄하향했다.

문제는 수출이 세계 교역량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들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 부진은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세계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영 전략을 보수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효진 기자 js62@

7월 경상흑자 규모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달에 비해 축소됐다. 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도 9개월째 지속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2년 3월부터 41개월째 플러스로, 사상 최장 기간 동안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상수지 규모는 전달(121억1000만 달러)에 비해 20억 달러 축소됐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전달(25억 달러)보다 5억8000만 달러 축소된 19억2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여행수지는 14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 2008년 7월(16억5000만 달러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마이너스였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기자 mint@

경기불안 속 G20 달려간 최경환

이주열 한은 총재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대표들과 한자리에서 해법을 논의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함께 오는 3~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다.

올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중국발 쇼크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과 정책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16~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된다.

이번 최 부총리는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과 양자회담도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양자회담에선 한중FTA 확대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 간의 해법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 말미엔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G20이 한층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내 일자리는 어디에…



서울 주요 대학의 취업박람회가 일제히 막이 올랐다. 하반기 공채가 시작된 셈이다.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2015 고려대학교 채용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기업 부스에서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朴대통령 방중…한중FTA 효과 극대화

中 전승절행사 참석 출국…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

新산업협력 계획…경제사절단 156명 코리아세일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2일 오전 중국으로 떠났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임기 후반기 첫 정상외교다.

특히 8·25 남북합의로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한반도 핵심 관련국인 중국을 순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갖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6번째 진행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리커창 총리와 면담한다.

3일에는 오전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대회를 참관하고 오찬 리셉션에 참석한 뒤 오후에 상하이로 이동한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에서 한중 양국 정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오찬간담회, 한중 비즈니스포럼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전자상거래 등 소비재 유통채널 확보 △대중 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전통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국의 협력 분야를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상호 연관성이 높은 양국의 금융시장 안정화와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양국 금융당국 상호 간 정보공유 및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최대 규모인 경제사절단이 함께해 코리아 세일즈에 나선다. 경제사절단은 총 15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제단체 및 협의회에서 21명, 공공기관·연구소에서 7명, 대기업 23명, 중견·중소기업 105명 등이 참여한다.

김의중 기자 zerg@

독도수역 통신 사각지대 없앤다

해수부, 통신중계소 설치·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가 독도 주변 수역에서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독도해역 어선안전관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세 기관은 독도에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독도경비대에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어선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 2012년에 전국 16개 수협중앙회 소속의 어업정보통신국에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5톤 이상의 어선 7500여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VHF-DSC)를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독도 주변 수역에 통신음영구역이 발생해 어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독도 주변 수역의 2700여 척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식별 선박 해소로 독도경비대의 해상경계 근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독도에 어선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는 물론 해양관할권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가거도 등 타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계속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농어촌공사 국제교육교류센터 첫삽

'농업기술' 한류 전파 메카로 육성

"국제교육교류센터 건설에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부채 부담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한류 농업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메카로 자리 잡을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농어촌연구원 부지에서 국제교육교류센터 기공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 사장은 현장경영에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의해 국제교육교류센터 건립에 나선 것이다. 이번 기공식을 하기까지 준비기간만 1년 6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농어촌공사는 개발도상국의 한류 농업기술 전파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국제교육교류센터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전문가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국제회의, 지식정보교류 등 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017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

국제교육교류센터는 국제회의장과 교육·연구시설, 게스트하우스 3개 동 등으로 300여 명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농업생산기반·농촌용수관리, 농어촌 개발·복지 공무원, 주민 역량 강화 등의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완공 초기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해 국제협력단이 19개국에서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2017년 1000여 명에서 점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기구·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연간 3000여 명의 인원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내다봤다. 앞으로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사장은 "이미 태국, 미얀마 정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농어촌연구원 부지에서 열린 '국제교육교류센터'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농식품부와 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AARDO(아시아·아프리카농촌개발기구) 사무총장 등 18개국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부처와 교육연수에 대한 시행약정을 체결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과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반세기 만에 선진 농업·농촌을 이룩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세계와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유흥주점 탈세 관련 세무서 2곳 압수수색

檢 칼날, 국세청 겨누나

세무공무원 '뒷돈 비호' 집중 조사

검찰이 최근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업주 박모씨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 등 2곳에 수사관을 파견, 업주 박모씨가 운영해 온 유흥주점과 관련된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A와 J 등 3-4곳을 운영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수년간에 걸쳐 약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을 탈루한 정황에 비춰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뒷돈을 받고 박씨를 비호해 왔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세청으로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올해 초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탈세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된 지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업주 박모씨와 유착 관계에 있는 세무공무원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업주 박모씨가 운영해 온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신고를 박모 전 지방국세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에서 일괄 수임해 온 점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잘못 부과된 세금 한해 1조7960억

2012~2014년 3만8000여건 불복

이 중 8728건 이의수용·소송 승소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713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8728건(5조3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결국 국세청이 연평균 1조7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002건, 3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135건, 3조1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171억원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조양호 회장 밤샘 조사 후 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피의자' 정준양 내일 소환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게 인도사업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총 공사비는 2억3332만550달러(약2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재임 기간에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의 인수·합병(M&A)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약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정 전 회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이번 정 전 회장의 소환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총 기자 kec@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 판결한 대법원

국선변호인에겐 수년간 성공보수 지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사실상 성공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기본 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판결을 이끈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으로 받아내도 마찬가지로 역시 기본 보수액의 100%를 더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그동안 국선변호인들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 온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판결 당시 대법원이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과는 맥락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선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과 국선변호인 보수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선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죄'라는 결과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돈이지만,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을 성의있게 처리하는 노력을 감안해준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국선변호인이 무죄판결이나 구속사건에서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얻어냈을 때 100%의 보수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예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가을이 영글어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한다. 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포도재배농가에서 농민들이 탐스럽게 영근 포도를 수확하며 결실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자녀 결혼비용 '아들 8000만원 이상·딸 6000만원 이하'

자녀가 결혼할 때 아들 가진 부모는 8000만원 이상을, 딸 가진 부모는 6000만원 이하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3년 이내 자녀를 결혼시킨 55~69세 기혼남녀(부모 세대)와 같은 기간에 결혼한 신랑 신부(자녀 세대)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신랑·신부·시부·시모·친정부·친정모 등 6개 그룹별로 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시아버지의 53.5%, 시어머니의 56%가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8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2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각각 10%와 1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정부모는 70%가량이 6000만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부모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10.4%에 불과해 대다수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비용 중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했다는 응답도 43.4%에 달해 부모의 지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서울 등 광역시 3곳 동결

부산과 대구 등 특별·광역시 5곳을 포함해 자치단체 59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서울 등 특별·광역시 3곳과 충남지역은 주민세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단일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끼리는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아래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000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했다.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서울,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동결했다.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남양주 한 곳만,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쉽고,편리한 투자의 시작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콕!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둘 매매타이밍 고민 NO! —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취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여성의원 늘려 정치적 목소리 키우기 '30% 공천할당제' 부터

미래와 여성

1부 여성과 경제
2부 여성과 금융
① 보폭 넓히는 금융 여성인력
② 여성임원은 왜 적은가
③ 여성금융인네트워크 12년
④ 관련입법 무엇이 필요한가

여성의 인권보호와 사회진출 확대 방안은 언제나 화두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가 않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여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가장 빠른 길은 '입법'이다. 실제 국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들의 입법 노력으로 부족하게나마 성폭력 처벌 강화를 비롯해 보육지원 강화,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다수 마련된 게 사실이다.

현재도 국회에는 여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2.7%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거나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원자격을 잃도록 하는 법안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성 의원들의 수가 적다 보니 국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국제의원연맹(FIU)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여성 정치참여율은 세계 190개국 가운데 북한의 바로 앞인 10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여성단체들이 '여성 공천 30% 할당제'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천 할당제와 같이 '결과적 평등'은 '남성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이혜훈 前 새누리당 최고위원

"워킹맘 안심 도우미 인증제 경단녀 활용 인재뱅크 도입"



여성인력 낭비는 국가적 불행
남녀 양극화 해소도 '경제정의'

만나서 밝게 웃으며 인사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눈물바람이다. 인터뷰 시작부터 눈물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눈가를 닦아야 할 지경이 된다.

"저, 세요, 센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든지 여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터지고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는 것이라 생각할 만큼 어렵잖아요. 그걸 아니까요.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렵잖아요."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현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얘기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데도 이혜훈 전 위원은 눈물을 일부러 감추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별명이 '수도꼭지'다. 사회적 위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은 그를 눈물 흘리게 하는 대상이다.

"저는 공부를 계속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별당하게 마련인 여성이 그나마 덜 차별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유학 시절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던 시절도 쉽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이 전 위원은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만나게 된다. 1997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을 받은 그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막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따라갔지만 잠깐 사이에 애를 놓친 거죠. 입학식이 오전에 끝났는데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아이를 찾았어요. 꽃샘추위로 눈까지 온 날이었는데 밥도 못 먹고 아이가 헤맨거죠. 다행히 경찰이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이상하게 보고 데려와 겨우 찾았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 전 위원은 아이 보는 도우미 인증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도우미라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 관련 기관이 '믿고 아이를 맡겨도 된다'고 인증해 줘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던 경험, 유학 시절 첫아이를 낳고 어렵게 찾은 도우미가 폐병 환자였던 아찔한 경험, 아이를 업고 자주 산책하러 나간다던 도우미가 알고보니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했던 경험 등이 모두 도우미 인증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고. 우수한 여성 인력은 인재뱅크를 만들어 활용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도 직접 겪어 본 현장에서 나온 제안이다.

민간기업까지는 강요할 수 없겠지만 국회의원 등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여전히 그가 밀고 있는 주장이다.

"아직까지도 여성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분명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겉으로는 페미니스트인 양하면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변인 정도는 여성에게 자리를 주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페미니스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이 어느 정도 많아져야 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많아야 할 뿐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여권 신장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여전하다. "여성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래서 한 거죠. 여성의 지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국가적 불운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남녀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 꿈입니다." 글/김윤경 부장·사진/노진환 기자 s914@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성과 경제활동 격차 심각 고용평등 위해 법·제도 정비"

"항상 여성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여전히 남성과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평소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 취업자 수는)남성 취업자 수보다 적고 남성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세계 남녀평등지수 순위는 2006년 92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117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한 성별격차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유리천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69만 6000원으로 남성의 278만8000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고, 비정규직은 55.3%로 남성의 36.4%보다 18.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에서 파생된 저임금,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연금의 부재·부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생애 과정 등은 여성 빈곤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일자리는 양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힘으로 낡은 정치문화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 살림정치'로 바꾸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성 국회의원들과 전국여성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전체 의원 300명 중 49명에 불과하다"면서 "여성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여성 지역구 공천 30%, 비례대표 60% 추천을 통해 전체 당선자 30% 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결국엔 여성의 정치



임금·취업률·근로조건 격차
여가부가 중심적 역할 해야

참여 확대가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여성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축소·존폐 등의 논란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의 확대를 위해 내세운 '보육 및 가족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정책' 등 주요 정책이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특정 정책은 물론 성주류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협력적 연계가 필수적 요소"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책추진기구의 총괄조정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6살 엘라는
전쟁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분쟁과 재난 때문에
엘라처럼 마음을 다친 아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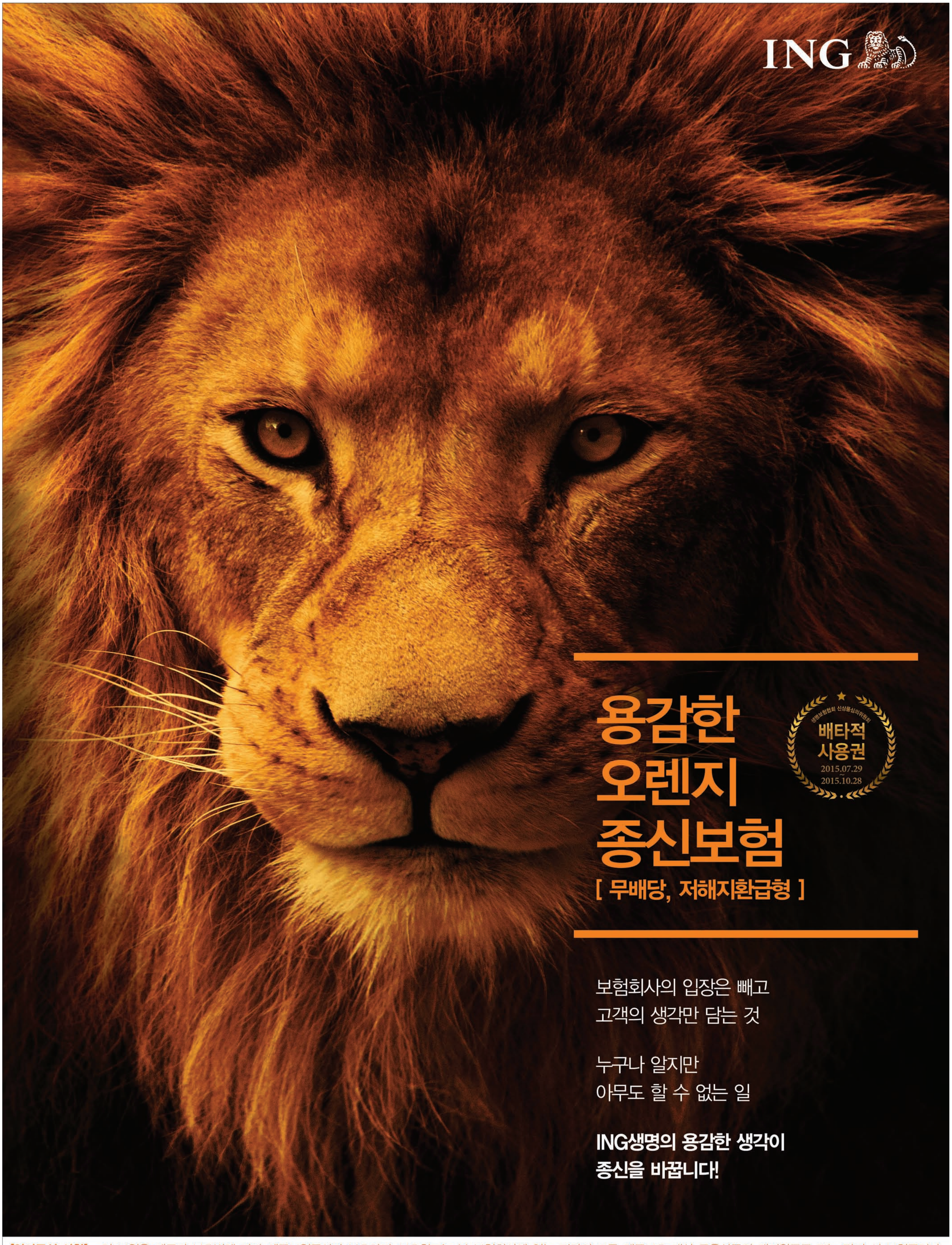
전 세계 **5천만 난민**의 **50% 이상**이
18세 미만 아이들입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지금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유엔난민기구 검색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 기구입니다.

정기후원신청
1899-7887



[알아두실 사항] • 이 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해당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1751호 (2015.7.31)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없앤다

금융위·금감원 개혁방안… 위반행위 5년 지나면 징계 않기로
기관 제재는 무겁게… 적발 건수에 따라 '경합가중제' 도입

금융당국이 5년이 지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안키로 했다. 금융사 일반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폐지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자율처리제도가 확대한다. 반면 기관 제재는 무거워 진다. 위반 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9차 금융개혁회의'심의를 거쳐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방안의 핵심은 제재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체 징계가 더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이 △견책서 감봉 이하로 확대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임원의 경우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5년이 경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원 제재는 금융당국이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형태"라며 "내규에 이를 명시하면 제재시효제도 도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관 제재는 더 무거워 진다. 금융회사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수준의 징계만 내려졌지만 앞으로는'단기·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무거운 징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 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 제한 기준은 완화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이 1년으로 단축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우리은행 '우리주거래 통신·관리비통장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통신비 및 아파트관리비 출금 전용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주거래 통신, 관리비통장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거래통장에서 주요 생활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통신비나 관리비 같이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연체가 잦은 지출 비용에 대해 자동납부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마이너스 통장방식으로 출금해 납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주거래 요건은 △급여·연금이체 △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고객으로 신용카드 1년 이상 보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의 소득 또는 재직증빙 서류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대출기간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인터넷, 스마트뱅킹으로 신청시 연 5.0%이다.

김우람 기자 hura@



한동우 "전 계열사가 하나처럼"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창립 14주년 기념식서 해외진출·협업모델 밝혀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그룹사 사장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전 계열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여야 한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은행과 증권간 협업 모델 표준을 만드는 등 노력했지만 단순히 협업을 위한 틀을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며 "더 중요한 과제는 그룹 전체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룹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업권을 포괄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출범한 신한금융은 그동안 조흥은행, 굿모닝증권(현 신한금융투자), LG카드(현 신한카드) 등을 인수해 외형을 확장했다. 지주사들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가장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 회장은 리딩뱅크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그는 "저금리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국내에 치중하기 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며 "다만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전략을 수립해 조기에 안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진출뿐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에게는 "고객의 꿈을 실현할 창조적인 방법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살아 숨 쉬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나간다면 신한은 1등 금융그룹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함영주 은행장 "KEB하나은행 출발합니다" 가두캠페인

함영주(오른쪽) KEB하나은행장은 2일 서울 명동 본점 앞에서 출범기념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함 행장을 비롯한 본점 임직원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종각역까지 약 700미터 거리를 일렬로 서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KEB하나은행입니다'라는 구호로 시민들에게 KEB하나은행의 출범을 알렸다.

함 행장은 "KEB하나은행이 새롭게 출발한 것에 대한 고객감사 의미와 함께 임직원 스스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여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수협 신용부문 분리… '수협은행' 설립 추진

수협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수협은행이 현 체제로는 강화된 국제 재무기준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국제 재무수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취임 이후 신경분리를 역점과제로 꼽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을 설득해 온 바 있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적용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인 수협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상황이다.

독립 수협은행이 바젤Ⅲ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약 2조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 정부로 부터 받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출자전환하더라도 9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회원조합과 임직원 출자금 등 자구노력을 통해 30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6000억 원은 수협중앙회가 채권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2만명 유커 모십니다" BC카드 한류 마케팅

BC카드가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KT-BC카드와 함께하는 The K페스티벌에 중국인 관광객 2만명을 초대한다고 2일 밝혔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원더걸스와 EXID, AOA 등 한류스타가 대거 참가한다. BC카드는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휴 여행사 14곳을 활용해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인 중국인들에게 티켓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IFA 2015 개막에 앞서 올해 전시 콘셉트 등을 미리 예고하는 삼성전자의 티저(Teaser)영상 중 캡처(왼쪽). LG전자 모델이 HDR 적용 OLED TV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LG전자

이틀 앞둔 IFA… 삼성·LG 흥행몰이

IFA CONSUMER ELECTRONICS UNLIMITED BERLIN, 4-9 SEP 2015

삼성, IoT 메인 전시관으로 가상현실 체험관도 운영

LG, HDR 콘텐츠 송·수신 글로벌 방송사 손잡고 시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치열한 홍보전에 돌입했다.

LG전자는 오는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IFA) 2015'에서 글로벌 유력 방송사들과 함께 HDR(High Dynamic Range) 콘텐츠의 송신부터 수신까지 시연한다고 2일 밝혔다. LG는 여러 시연과 영상 콘텐츠 공급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HDR 기술이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OLED TV를 적극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LG는 영국 최대 방송사인 BBC와 손잡고 유럽 지상파 방송규격(DVB-T2)으로 HDR 영상을 세계 처음으로 시연한다. 또 유럽방송연맹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유럽 차세대 방송규격 'HbbTV 2.0'의 HDR 영상을 시연하는 한편, 유럽 초대형 방송사업자 '아스트라'와도 HDR 위성 방송을 시연한다. 세계적 통신장비 업체인 브로드컴과 셋톱박스를 통해 HDR 방송을 수신하는 기술도 시연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린 약 400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 HDR을 적용한 울트라 OLED TV 라인업을 공개한다.

HDR은 화면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하는 기술로, 한층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을 메인 테마로 전시관을 꾸린다. 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단독 건물 시티큐브 베를린에 부스를 마련하고, 삼성의 IoT 기술과 관련 제품이 가져다줄 삶의 변화를 'In Sync with Life' 메시지 아래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시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가상현실까지 전시를 확장했다. 베를린 시내 주요 명소에서 전시관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관도 운영에 들어갔다. VR 체험존에서는 스카이다이빙을 통하여 삼성전자 전시관으로 이동해, 전시관을 실제 방문한 것과 같이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전시장 내부와 삼성 IoT 제품을 비롯해 주요 제품을 둘러보는 등의 가상현실 콘텐츠로 전시관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에는 올해 전시 콘셉트 등을 미리 예고하는 티저(Teaser)영상을 공개하며 흥행몰이에 나섰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다음카카오→카카오… 이재웅의 심경은

"즐거운 실험은 이제 일단락"

"바뀐 세상… 바뀔 대상 인정 더 나은 서비스 만들었으면"



"즐거운 실험은 이제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사명 변경을 발표한 뒤 나온 이재웅(사진)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의 첫 심경이다.

이 창업자는 2일 자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실험은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다. 물론 실험이 성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세상이 더 빨리 바뀌었다면 자신도 바뀔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카카오의 사명변경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그는 "즐거운 실험은 이제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다"며 "물론 우리가 해왔던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 될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창업자는 "그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새로운 자리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곳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게 모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실험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창업자는 다음이라는 사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즐겁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있다는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20년, 영속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DNA는 영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이름은 소멸되지만 그 문화, 그 DNA, 그리고 그 문화와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며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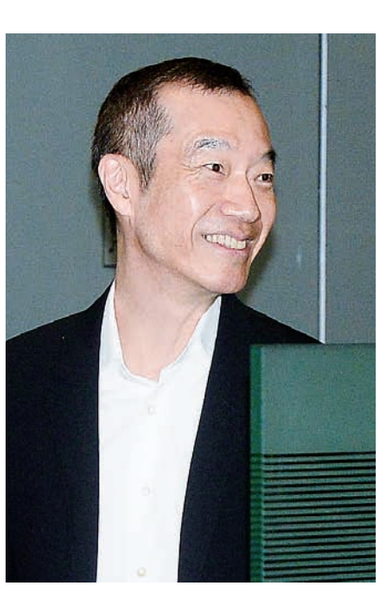
이 창업자는 "물론 후회도 많다.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요다음에 같은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렇지만 그 경험을 잘 전수해서 새로운 세대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그는 "다음은 이제 없어지지만 요다음엔 선배들을 거울삼아 새롭게 이 사회의 다양성을 좀 더 진작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화롭게 모아내고,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면서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서비스와 회사가 후배, 동료들에 의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전일 다음을 뺀 '카카오'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모바일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 본격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카카오는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지훈 신임대표 선임과 사명 변경이 확정되면, 합병 이후 유기적 결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생활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를 더 낸다는 각오다.

양창균 기자 yangck@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2일 공식 출범한 '뉴 삼성물산'을 이끌 4인방, 최치훈·윤주화·김신·김봉영 사장(왼쪽부터)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 지붕 네 가족' 뉴 삼성물산 첫발

최치훈 사장 이사회 초대 의장
패션 부문 윤주화, 상사 김신
건설·리조트는 김봉영 사장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올라

삼성물산이 '한 지붕 네 가족' 체제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삼성물산은 2일 오전 서울 서초사옥에서 합병법인의 첫 이사회를 열어 최치훈 건설 부문 사장을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하고, 윤주화 패션 부문 사장, 김신 상사 부문 사장, 김봉영 건설·리조트 부문 사장 등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당분간 통합 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4개 사업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도부도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행정·법률상 대표 업무(이사회 의장)는 이들 4명의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선임자인 최 사장이 맡는다.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통합 전 양사의 틀을 대체로 유지해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삼성물산의 출범으로 그룹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된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상당한 사업적 시너지도 예상된다. 뉴 삼성물산은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의식주휴(衣食住休)' 및 바이오 선도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사업부별로 기존 삼성물산 건설·상사 부문은 서초사옥을, 제일모직 건설·리조트 부문은 태평로 옛 삼성본관을, 패션사업 부문은 도곡동 군인공제회관빌딩을 사용한다. 오는 4일 합병법인 등기 완료 후 14일 신주를 교부하고 15일 증시에 상장하면 단숨에 시가총액 순위 4위(1일 종가기준 30조5000억원)에 올라선다.

장효진 기자 js62@

LCC, 기내식부터 좌석까지 유료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유료 서비스를 크게 늘리고 있다. 당초 무료로 제공해오던 기내식, 좌석 선택 등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이달 1일부터 탑승편 좌석 중 탑승고객이 선호하는 지정 좌석에 대해 유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에 이어 4번째 좌석지정서비스를 도입한 LCC가 됐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옆 좌석 유료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탑승고객의 바로 옆 좌석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출발 당일 탑승공항 카운터에서 1만~2만원의 운임을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다.

돈 주고 사먹는 '유료 기내식'도 점차 늘고 있다. 유료 기내식을 가장 먼저 시작한 LCC는 제주항공이다. 2013년부터 일부 국제선에서 유료 기내식을 제공하다 점차적으로 전 노선으로 확대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6월부터 기내식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국제선(홍콩·태국 방콕·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푸켓)에 한정했다. 간편 유료 메뉴는 기존 컵라면에 미역국컵반, 황태국컵반 등을 추가했다.

반면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등은 여전히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OCI, 中에 4.6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브릿지스톤사 공장 지붕에 세워
"25년 동안 매출 223억원 기대"

OCI가 지난해 세계 타이어 1위 기업인 브릿지스톤과 손잡고 중국 태양광 시장 공략 속도를 올린다.

OCI는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있는 브릿지스톤사 공장에서 브릿지스톤사 중국 총괄사장 미키타 히로타카와 OCI 우시솔라 강학지 사장, 우시시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6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전력공급계약(EMC)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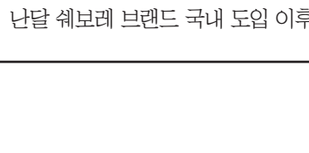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소는 브릿지스톤사 공장 지붕 9만㎡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우시시 정부가 포함된 3자간의 계약으로 OCI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브릿지스톤은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당하며 우시시 정부는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OC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브릿지스톤사에 공급하는 등 25년 동안 총 1900만 달러(한화 약 223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OCI는 중국 태양광 시장 공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우시시 정부와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중국 장쑤성 후아이안주 홍저구의 12만㎡ 면적의 게 양식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올해 10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OCI는 저장성 자싱시에 총 20MW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5MW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2.9MW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동성 옌타이시에 6MW를 설치하는 등 2015년 말까지 총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중국에 건설·운영할 예정이다.

이우현 OCI 사장은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적극 진출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모닝 제친 스파크 8년 만에 경차 1위

지난달 6987대 판매 53% ↑
신형, 가격 낮추고 연비 개선

한국지엠의 쉐보레 스파크가 지난달 라이벌 모닝을 꺾고 경차 부문서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스파크가 경차 판매 1위에 오른 것은 2007년 12월 이후 8년만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파크는 지난 8월 한달간 6987대를 팔아 모닝(6954대)을 제치고 경차 부분 판매 1위를 달성했다. 그동안 경차 1위는 줄곧 기아의 모닝 차지였다.

스파크의 8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3.3% 증가했다. 신형 스파크는 6년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 한 모델로 가격을 낮추고 최첨단 기능을 탑재했다. 새로운 1.0ℓ 3기통 에코텍(Ecotec) 엔진과 차세대 C-TECH 무단변속기를 장착해 정숙성과 주행 성능을 크게 높였다. 스파크는 지난달 쉐보레 브랜드 국내 도입 이후, 최대 월간 판매량을 달성했다.

한국지엠은 판매 비중이 높은 주력 모델(LT, LT+)의 가격을 이전 모델 대비 각각 23만원과 9만원 낮췄다. 여기에 첨단 사양이 추가된 최고급모델(LTZ, C-TECH 적용 기준)의 가격 인상폭을 13만원으로 최소화했다. 특히 연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에코 모델도 성공적이란 평이다. 전체 판매량의 약 15%를 차지한 에코모델은 복합연비가 리터당 15.7km다. 일반 모델의 리터당 14.8km보다 리터당 0.9km 더 나간다.

한국지엠은 이달부터 시승차 2000여대를 도입해 대규모 시승을 제공, 차량 판매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총 3만5940대(내수 1만3844대, 수출 2만2096대)를 판매했다. 이 회사의 지난달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여성 멘토링’ 회사가 키운다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⑪ 코오롱

매년 1~2명 여성임원 임용·승진
대졸신입 여성 30% 선발 의무화
2012년 BPW 골드 어워드 수상
과천 본사 ‘코오롱어린이집’ 운영
야근직원도 편하게 맡기게 배려



이웅열(왼쪽)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2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BPW 국제친선의 밤’ 행사에서 ‘제18회 BPW 골드 어워드’를 수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오롱그룹

코오롱그룹은 인사정책을 통해 여성인력 육성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남성 선호 업종이 주력임에도 채용·승진 등에서 성 차별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2010년 정기 임원 인사부터 해마다 1명에서 2명씩 신규 여성임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이수영 대표를 들 수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대표를 맡게 됐다. 그룹 내에서 유일한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노르웨이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아커솔루션과 합작해 석유 및 가스 분야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플랜트 고도 정제 패키지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며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섰다.

또 지난해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럭키슈에뜨 브랜드 매니저인 김정림 부장이 상무보로 승진했다. 2003년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 상무보는 럭키슈에뜨 브랜드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성 인력 채용은 임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오롱은 2002년부터 여성인력 할당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해마다 대졸 신입사원의 30%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7년부터는 여성멘토링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여직원 400여명이 참가해 도움을 받고 있다. 여성멘토링 제도는 과장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가 여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제도다. 코오롱그룹은 젊은 여직원들에게 직장 내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코오롱 측은 “현재 여러 기업들이 멘토링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는 경기도 과천 본사에 직장 보육 시설인 ‘코오롱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직원들의 육아 지원에도 나섰다. 기존 업무용 시설을 리모델링한 코오롱 어린이집은 내부 면적 492.3㎡에 4개의 보육실, 실내 놀이터, 영·유아용 화장실, 주방과 식당 등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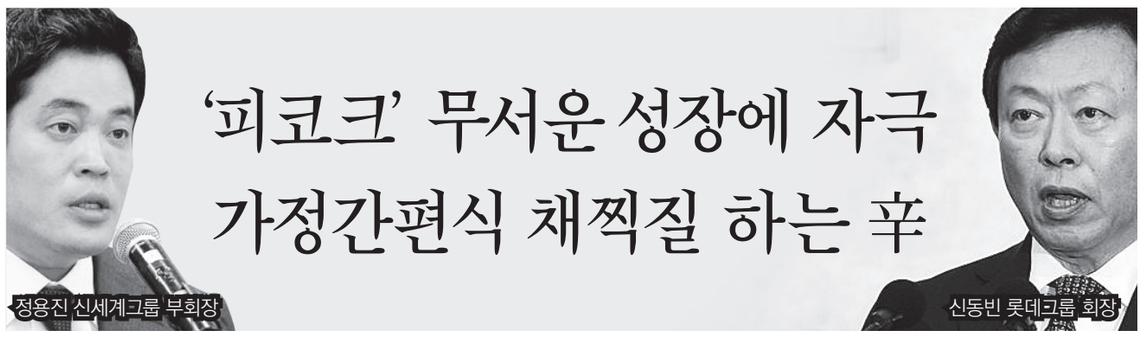
84.7㎡ 규모로 따로 마련한 야외놀이터는 물이 흘러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수경 벽면, 꽃 등을 심어 가꿀 수 있는 텃밭, 모래놀이터 등으로 구성했다. 정원은 65명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돼 야근하는 직원들도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처럼 코오롱그룹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여성 친화적 정책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2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문직여성연맹(BPW) 국제친선의 밤’ 행사에서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18회 BPW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BPW 골드 어워드’는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이 1993년부터 매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평등의식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코오롱의 양성평등 제도는 단순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며 “우수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재 양성 정책으로, 앞으로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피코크’ 무서운 성장에 자극
가정간편식 채찍질 하는 辛

트렌드 선도 상품 개발 강조…롯데푸드, 신제품 판매
작년 시장규모 1조7000억…올해 15~20% 성장 기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가정간편식(HMR) 시장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올 하반기에 가정간편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가 가장간편식 제조시설 4개를 확보하고, 제품을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계열사 유통 매장을 통한 판매에 나섰다. 롯데 측은 가정간편식 사업을 곧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롯데의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은 신 회장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신 회장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이는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롯데 마케팅 포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날 신 회장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앞서는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롯데푸드 측은 “기존에 스파게티나 드레싱 등에서 일부 가정간편식 제품을 선보였고, 지속적으로 종합식품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사업 확대를 개발하고 연구해왔다”며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가정간편식 시장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마트의 가정간편식 브랜드 ‘피코크’의 무서운 성장세도 한몫하고 있다. 국가대표 PL(자체 브랜드)을 만들겠다는 라이벌 기업의 질주가 부러웠을까. 최근 피코크는 론칭 2년 만에 이마트 가정간편식 전체 매출의 10%를 훌쩍 넘어섰다. 정 부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 부회장은 지난 18일 조선호텔과 합작한 ‘피코크 조선호텔 김치 8종’(포기김치, 총각김치 등)을 들고 나왔다. 대형마트에서도 특급호텔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함에 따라 PL의 고급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간편식은 바로 먹거나 간단한 조리과정만 거치면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간편하게 한끼를 대체하면서 영양분을 고루 갖춘 식품이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시장 규모가 2009년 7170억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5~20% 성장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가정간편식 시장은 이 같은 성장 가능성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분야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이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소비의 커다란 주축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소득수준 향상, 라이프스타일의 서구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당 평균 구성원 감소, 노령화 사회라는 한국 사회 단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정간편식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풀무원, 빙그레, 신송식품, 사조대림, 샘표식품 등 식품제조 업체와 현대그린푸드, 태경농산 등 식자재 유통업체가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프릿지팩·낱개포장·미니사이즈…

유통업계 “500만 싱글족 잡아라”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인 싱글족이 사상 처음 500만 가구를 돌파하자 유통업계가 이들을 겨냥한 전략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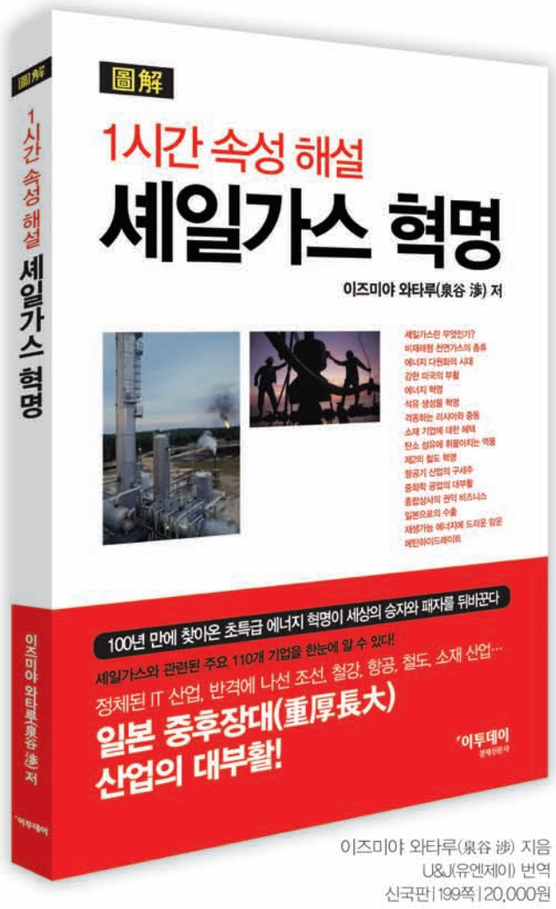
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천연탄산수 페리에는 최근 신규 패키지 ‘페리에 프릿지팩(Fridge Pack·사진)’을 국내 최초 출시했다. 프릿지팩은 패키지 상단에 표기된 점선을 따라 뜯으면 페리에 캔이 차례로 내려와 쉽게 마실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소비자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이색 패키지이다. 페리에 프릿지팩의 입구를 뜯은 후 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 정리가 편하고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기에 찢어지지 않아 운반에도 편리하다. 10개의 250㎖ 슬림캔으로 구성, 일반 여성이 혼자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워 1인 가구에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오리온은 싱글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초코파이, 닥터유 에너지바, 마켓오 리얼쿠키 등의 제품을 낱개 판매 중이다.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싱글족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편의점 전용 낱개 제품을 내놓았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한 손에 잡히는 싱글팩으로 구성돼 휴대 섭취가 간편한 장점을 갖고 있다. 오리온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 낱개 판매량이 50% 가량 증가하는 등 매출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월 싱글족을 위한 간편대용식 ‘햇반 컵반’ 5종을 출시했다. 갓 지은 듯한 밥맛을 살리고 국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액상 소스를 활용, 가정식에 가까운 간편식을 선보였다. 또한 미역국밥, 순두부찌개국밥 등으로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해 간편함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즉석밥 최초로 국내산 취나물을 활용한 ‘햇반 취나물밥’도 선보였는데 나물 손질에 부담을 느끼는 1인 가구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해 인기몰이 중이다.

쿠쿠전자는 올해 최고급 사양을 장착한 ‘풀스테인리스 2.0에코 미니’를 출시했다. 혼자 세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밥을 만들 수 있는데 싱글족의 식생활 패턴을 고려해 부피는 줄이고 기능은 강화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1인 가구가 편하고 쉽게 집밥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 제품의 매출이 예전 버전 대비 30% 이상 성장하는 등 싱글족에게 인기가 많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위안화 선물환 거래 규제" 거꾸로 가는 中 인민은행

'거래액 20% 예치 의무화' 고객 부담↑… 거래억제 효과
자본유출·위안화 하락 방지… 시장자율화에 제동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자유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1일(현지시간) 위안화 선물환 거래에 대한 새 규제를 도입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은행들은 위안화를 팔아 미국 달러화를 매입하는 선물환 거래액의 20%를 예치금으로 인민은행에 맡겨야 한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1년간 '제로(0)' 금리가 적용된다.

예치금에 무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시 은행들은 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을 수입업체 등 고객에 전가해 결국 선물환 계약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위안화 매입 선물 계약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중국 공안(경찰)과 공동으로 불법 돈세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멍칭펑 중국 공안부 부부장(차관급)은 지난달 말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불법적인 자금 이전 등 '지하금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11월 말까지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자본유출을 방지해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달러 · 위안 환율 추이

※출처: 블룸버그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출처: 블룸버그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사흘 연속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경기둔화 불안이 고조되고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자 다시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려 하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평가절하에 대해 시장에 환율 결정을 맡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규제 도입으로 그런 명분은 퇴색됐다. 환전에는 무역 등 실수요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선물환 계약은 면제된다. 이에 위안화 하락을 전망해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철퇴를 든 것이다.

당초 인민은행은 수출을 부양하는 등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평가절하를 단행했지만 위안화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해 오히려 경기부양에 방해가 되고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그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6월에 3조9930억 달러(약 469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나서 올해 7월까지 약 10% 감소했다. 지난달은 평가절하 이후 대규모 환시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자율에 역행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손상될 위험도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오는 11월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상하이외환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전일 대비 0.19% 떨어진(위안화 강세) 6.3642위안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경찰관 피살 용의자 수색

중무장한 경찰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폭스레이크에서 경찰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난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용의자들은 백인 2명, 흑인 1명으로 지난달 28일 텍사스 주 휴스턴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백인 보안관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어 폭스레이크 경찰서 소속 찰스 조지프 글리니위츠 경위도 세 용의자를 쫓던 중 총격을 받아 피살됐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총출동하면서 헬리콥터와 경찰견, 장갑차도 동원해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

폭스레이크/AP연합뉴스

지주회사 변신하는 구글, 로고도 새 옷

모바일·웨어러블 시대 반영
글꼴 현대적 디자인 변신



구글 옛 로고와 새 로고. 사진출처 구글 웹사이트

지주회사로 가는 구글이 회사 로고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전면 변경했다.

구글은 1일(현지시간) 회사 공식 블로그에 디자인 변경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는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 녹색 등 색상 구성은 그대로이지만 글꼴을 바꿔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다.

구글은 기존 로고에 '세리프(serif)' 글꼴을 썼으나 이를 '산세리프(sans-serif)'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브랜드 컨설팅업체 랜도어소시에이츠의 리처드 웨스텐도르프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세리프' 글꼴은 보다 전통적이고 진지한 의미를 상징한다"며 "반면 '산세리프'는 더욱 현대적이거나 가까이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할 때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달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하고 그에 맞춘 대대적인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재편 과정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로고 변경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글의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인 테이마 예호슈아와 사용자 경험 디렉터인 보비 내스는 이날 성명에서 "구글은 과거 데스크톱 PC라는 단일 기기가 유일한 도착 장소였다"며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은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TV 시계 자동차 등 여러 기기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앱을 통해 구글 제품들과 상호 작용을 한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가장 작은 화면에서도 구글의 마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지금까지 일부 서비스에 사용됐던 파란색 소문자의 'g'아이콘 대신 네 가지 색의 대문자 'G'인 로고 단축형도 공개했다. 아울러 마이크나 타이핑 등 다양한 기능을 표시하는 아이콘들을 선보였다. 이들 아이콘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로고에서 쓰인 것과 같은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한다.

로고 변경과 함께 회사는 실리콘밸리 본사 건물에 걸려져 있던 간판도 교체했다고 WSJ는 전했다.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모두가 구글의 새 로고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디자인업체 인-하우스인터내셔널의 미추 버나임 스타이너 파트너는 "원래 핵심 로고가 크게 바뀔 때는 반사적으로 거대한 거부반응이 일게 마련"이라며 "구글 새 로고가 비슷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도 놀랍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20 도쿄올림픽 '첩첩산중'

주경기장 건축 전면 재검토 이어
'표절 논란' 공식 엠블럼 폐기키로

제32회 일본 도쿄올림픽 준비가 잇단 악재로 삐걱거리고 있다. 대회 주경기장 건설 계획이 혈세 낭비 논란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올림픽의 공식 엠블럼이 발표된 지 불과 1개월 여만에 표절 논란으로 폐기됐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일 올림픽·패럴림픽 공식 엠블럼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직위의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엠블럼은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공식 엠블럼은 조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104개 작품 중 아트 디렉터 사노 겐지로의 작품을 최종 선정해 올 7월에 발표한 것이다. 엠블럼은 일본의 수도 '도쿄(Tokyo)'와 '팀(Team)', '내일(Tomorrow)' 등을 상징하는 알파벳 대문자 'T'를 형상화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엠블럼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뒤 벨기에 디자인 업체 '스튜디오 데비'의 올리비에 도비 대표가 자신이 지난 2013년에 제작한 리에쥬극장의 로고와 똑같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표절 논란이 일자 제작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해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도 "상표도 독창성도 문제 없다"며 표절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작자가 제출한 원안의 활용 사례 2장의 사진도 어떤 개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표절 논란은 더 확산됐다.

신문은 이미 행정기관이나 일부 스폰서 기업들이 올림픽 공식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례적인 교체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림픽 준비 과정의 악재는 이뿐 만이 아니다. 앞서 조직위가 유명 건축가 자하 하디드에게 의뢰했던 주경기장 건축 사업은 건축 비용 과다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산출된 바에 따르면 단일 경기장 건축 비용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2520억 엔(약 2조4729억원)으로 알려졌다.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공사비를 원안의 58% 수준까지 깎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설계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2019년 5월로 예정됐던 완공 기한은 올림픽 개막 7개월 전인 2020년 1월로 늦춰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루이비통, 애플 음악사업 책임자 영입

이안 로저스, LVMH CDO에



애플의 음악사업을 주도하던 이안 로저스〈사진〉가 세계 최대 명품업체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로 자리를 옮긴다.

LVMH는 애플뮤직의 핵심 서비스인 인터넷 라디오 '비츠1'의 크리에이터였던 로저스를 자사의 최고디지털책임자(CDO)로 기용한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저스는 유명 래퍼인 닥터 드레 등이 설립한 비츠의 최고경영자(CEO)로 있다가 지난해 애플이 비츠를 32억 달러(약 3조7600억원)에 인수하면서 애플에 합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주말 로저스의 사임 소식을 첫 보도했을 때만 해도 그의 행선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로저스는 온라인 음악 부문에서 잔뼈가 굵었으나 이번에 굴지의 명품업체인 LVMH CDO로 기용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는 평가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달 말 '애플뮤직'의 유료화를 앞두고 핵심 인재가 떠나 뼈아픈 손실을 보게 됐다. 비츠1은 무료 라디오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애플뮤직 사업구조의 핵심이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이안은 첨단 디지털 벤처에서의 풍부험 경험과 혁신 정신으로 디지털 럭셔리 시장에서 LVMH의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냈다.

럭셔리 업체들이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고위급 인재를 빼앗기고 있는 가운데 LVMH는 반대로 핵심 인재를 영입한 셈이다. 지난해 버버리에서 8년간 CEO를 역임했던 안젤라 아렌츠가 애플의 온라인 판매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럭셔리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로저스 영입은 LVMH가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에 대응해 디지털 분야에서 새 활로를 찾으려는 전략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난민 때문에…" 금가는 유로존

메르켈 獨 총리 "부담 나누자… 더블린 조약 유보"
헝가리 "난민들 국경 왕래 보장" 떠넘기기 꼼수

유럽이 난민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난민도 문제지만, 대책을 놓고 국가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은 10만75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로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국가 간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국가들의 난민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추진한 조치도 역이용될 뿐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지난달 21일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한 더블린 조약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더블린 조약이 신속한 망명 처리를 취지로 입안됐지만, 난민들이 특정국가들에 쏠리고 있으니 그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더블린 조약 유보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메르켈의 예상은 엇나갔다. 헝가리가 시리아 국적인 난민들이 독일로 이동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며 독일의 조치를 역이용한 것이다. 헝가리는 오히려 유럽 지역 내 회원국간 자유로운 국경 왕래를 보장한 셍겐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헝가리는 난민들이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관문 역할 정도만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헝가리는 1일(현지시간) 서유럽으로 오가는 열차, 이른바 '난민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뒤늦게 공지했다.

헝가리의 이번 조치를 두고 독일은 비난했지만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 스스로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도 더블린조약 적용 유보가 "어느 정도 혼선"을 가져왔음을 인정했다.

한편, 오는 14일 EU 긴급 내무·법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난민 급증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이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내달 6일부터 美전역서 '하루종일' 맥모닝

맥도날드가 다음 달 6일부터 미국 내 1만4300개 매장에서 아침메뉴를 하루 종일 판매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출 부진의 해결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마케팅을 미 전역에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버거킹이 제안한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거절한 만큼 이번에 내놓은 경영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아침메뉴 판매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지난 3월부터 검토해왔다. 수 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맥도날드 본사는 지난주 가맹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동의를 얻었다. 오는 3일 예정된 가맹점지도자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안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WSJ는 이번 마케팅 전략을 두고, 스티브 이스터브룩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취임하면서 맥도날드의 오래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맥도날드의 고객들은 수년 전부터 오전 10시 30분이면 판매를 중단하는 아침메뉴를 종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맥도날드의 미국 사업부 대표 마이크 안드레스는 이번 아침메뉴 판매시간 연장이 지난 2009년 커피를 판매하는 맥카페를 도입한 이래로 가장 큰 회사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안드레스 대표는 "소비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변화가 맥도날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창원 롯데캐슬 The First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로 인한 특수 청약 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무적재 됨.
■ 당 아파트는 청약통장 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및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며 청약통장 1순위 해당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년 이상 경과한 분, 지방 6개월 경과한 분(단, 2015년 6월 30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한 분)
■ 당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다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분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 : 청약접수 시작일
■ 청약통장 가입 후 경과기간 : 청약접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다만, 당첨자 관리를 위하여 계약에 앞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청약자 편의를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적용은 청약 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함.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원
■ 공급대상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통장 가입자 중 수도권 1년 이상 6개월 이상 경과한 분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총 1,184세대(223,727.24㎡)(조합 389세대(40,905.12㎡)(보류지 104세대 포함), 일반 108세대(8,245.92㎡) 포함) 총 608세대 입찰 공고 및 무순위조사실시
■ 공급금액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기준, 세대별 동·호수별 상이)

타입	해당동	층	총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잔금(50%)
59A (12층)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3층	2	93,724	145,474	199,200	253,926	253,926	253,926	253,926	731,740
		4층	2	93,724	145,474	199,200	253,926	253,926	253,926	253,926	731,740
		5~6층	4	93,724	147,474	201,200	255,926	255,926	255,926	255,926	737,740
		7~8층	4	93,724	149,474	203,200	257,926	257,926	257,926	257,926	743,740
		9~10층	4	93,724	151,474	205,200	259,926	259,926	259,926	259,926	749,740
		11~12층	4	93,724	153,274	207,000	260,726	260,726	260,726	260,726	751,740
		13~14층	4	93,724	155,074	208,800	262,526	262,526	262,526	262,526	757,740
		15~16층	4	93,724	156,874	210,600	264,326	264,326	264,326	264,326	763,740
		17~18층	4	93,724	158,674	212,400	266,126	266,126	266,126	266,126	769,740
		19~20층	4	93,724	160,474	214,200	267,926	267,926	267,926	267,926	775,740
		21~22층	4	93,724	162,274	216,000	269,726	269,726	269,726	269,726	781,740
		23~24층	4	93,724	164,074	217,800	271,526	271,526	271,526	271,526	787,740
		25~26층	4	93,724	165,874	219,600	273,326	273,326	273,326	273,326	793,740
		27~28층	4	93,724	167,674	221,400	275,126	275,126	275,126	275,126	799,740
84A (12층)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3층	5	124,902	193,998	265,800	337,602	337,602	337,602	337,602	975,320
		4층	5	124,902	193,998	265,800	337,602	337,602	337,602	337,602	975,320
		5~6층	9	124,902	196,798	268,600	340,402	340,402	340,402	340,402	983,320
		7~8층	9	124,902	199,598	271,400	343,202	343,202	343,202	343,202	991,320
		9~10층	9	124,902	202,398	274,200	346,002	346,002	346,002	346,002	999,320
		11~12층	9	124,902	205,198	276,800	348,402	348,402	348,402	348,402	1,006,320
		13~14층	9	124,902	207,998	279,600	351,202	351,202	351,202	351,202	1,014,320
		15~16층	9	124,902	210,798	282,400	354,002	354,002	354,002	354,002	1,022,320
		17~18층	9	124,902	213,598	285,200	356,802	356,802	356,802	356,802	1,030,320
		19~20층	9	124,902	216,398	288,000	359,602	359,602	359,602	359,602	1,038,320
		21~22층	9	124,902	219,198	290,800	362,402	362,402	362,402	362,402	1,046,320
		23~24층	9	124,902	221,998	293,600	365,202	365,202	365,202	365,202	1,054,320
		25~26층	9	124,902	224,798	296,400	368,002	368,002	368,002	368,002	1,062,320
		27~28층	9	124,902	227,598	299,200	370,802	370,802	370,802	370,802	1,070,320
101	101동(4호)	3층	1	125,152	194,652	264,200	333,748	333,748	333,748	333,748	963,740
		4층	1	125,152	194,652	264,200	333,748	333,748	333,748	333,748	963,740
		5~6층	2	125,152	197,548	266,900	336,448	336,448	336,448	336,448	971,740
		7~8층	2	125,152	200,348	269,700	339,248	339,248	339,248	339,248	979,740
		9~10층	2	125,152	203,148	272,500	342,048	342,048	342,048	342,048	987,740
		11~12층	2	125,152	205,748	275,100	344,448	344,448	344,448	344,448	994,740
		13~14층	2	125,152	208,548	277,900	347,248	347,248	347,248	347,248	1,002,740
		15~16층	2	125,152	211,348	280,700	350,048	350,048	350,048	350,048	1,010,740
		17~18층	2	125,152	214,148	283,500	352,848	352,848	352,848	352,848	1,018,740
		19~20층	2	125,152	216,948	286,300	355,648	355,648	355,648	355,648	1,026,740
		21~22층	2	125,152	219,748	289,100	358,448	358,448	358,448	358,448	1,034,740
		23~24층	2	125,152	222,548	291,900	361,248	361,248	361,248	361,248	1,042,740
		25~26층	2	125,152	225,348	294,700	364,048	364,048	364,048	364,048	1,050,740
		27~28층	2	125,152	228,148	297,500	366,848	366,848	366,848	366,848	1,058,740

■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금(분양가격의 10%)은 계약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분양가격의 60%)은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로 분할 납부하며 잔금(분양가격의 30%)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 후불제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체료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체료 부과함.
■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이후 분양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없음.
■ 중도금 납부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이후 분양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없음.
■ 잔금 납부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이후 분양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없음.
■ 잔금 납부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이후 분양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없음.
■ 분양가격 변동에 따른

국회 경제포럼

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민족자산으로서의 농업



'농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agriculture'는 라틴어 'agri(흙)'와 'cultura'(쿨투라/경작·문화)가 합쳐진 말이다.

고대에는 어떤 작물과 짐승을 키우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 자체가 문화였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농업과 식품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급격히 밀려났다.

당시 인구 2명 중 1명(1424만 명)은 농촌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인구 3명 중 2명(58%)이 농업에 종사했다. 정부 예산의 4분의 1(25.1%)은 농업에 지출됐고, GNP의 3분의 1(36.3%)은 농업 분야에서 생산됐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2014년, 농촌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5분의 1(27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인구의 5.5%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의 고령화율은 40%로 전국(13%) 평균보다 3배나 높아졌다. 2015년 농업 예산의 비중은 1962년의 5분의 1 수준인 5.1%로 감소했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가까스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농가의 수입도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농민 10명 중 6명(64%)이 1년 동안 농축산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이고, 2004년 농가의 월 평균소득은 242만 원, 10년이 지난 작년에는 49만 원 증가한 291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소득이 311만 원에서 473만 원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도시근로자 소득이 뛰어가는 동안 농가 소득은 걸어가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소울음, 옥수수와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 가을 들녘 등 어머니 품과 같은 정겨운 추억이 깃든 우리 기억 속의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을 단순한 산업(Business, Industry)을 넘어 그 시대의 문화(Culture)를 담아 내는 민족 자산(National Asset)으로 인식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줄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에 농업 예산 증가율을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 정책의 목표도 농가 평균소득(월 291만 원)을 전국 가구 중 위소득(월 392만 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5% 감소했고, 논 면적도 15% 줄어들었지만, 옥수수, 콩, 팥, 녹두 등 밭작물의 소비는 5~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밭 면적도 4% 증가했다.

반면 밭작물 자급률의 경우 고추는 2000년 90%에서 2012년 42%로, 마늘은 같은 기간 90%→74%로, 잡곡류는 42%→26%로 각각 줄어들었고, 밭의 기반정비율(14%)도 논(6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밭농사의 기계화율(56%)도 논(94%)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은 논·쌀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 밭·밭작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세계적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 교수의 외침에 다시 주목할 때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국회에 대한 왜곡 정보들



홍윤오 국회 홍보기획관

욕만 얻어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누구든지 지적당할 건 당해야 하지만 가끔은 칭찬도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지적받는 직업이 있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칭찬도 받고 존경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모여서 집단으로 움직이면 싸잡아 비난을 받기 일쑤다. 이쯤하면 어느 직업인지 짐작이 간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를 홍보하는 것은 그래서 힘이 든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어찌 보면 비난과 지적은 운명이다. 일을 대신 해 달라고 대표로 뽑아 놓고 권한도 주었으니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을 터. 약간만 잘못해도 꾸중을 듣기 십상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때 받더라도 사실과 다른 오해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온당하지 않다. 더욱이 그 비난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내용이라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 오보나 실수로 넘겨 버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

흔한 오보나 주장은 이런 것들이다.

'국회의원 특권이 수백 가지다'.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면 평생 연금을 수령한다', '국회의원은 항공기, 철도, 선박을 무료로 이용한다', '국회의원은 골프장 이용 시 사실상 회원 대우를 받는다' 등등. 하지만 열거된 사안 모두 사실이 아니다. 특권 수백 가지는 막연한 얘기다. 현 국회인 19대 국회부터는 퇴직 후 의원연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 전까지 받아오던 사람들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등 연금 수급 대상이 대폭 줄었다. 항공기, 철도, 선박 무료 이용은 이미 10년 전 관련 규정이 사문화됐고 지난해 3월 아예 삭제됐다.

그런데도 이런 엉터리 내용들이 SNS 등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그중 하나가 강원도 고성에 짓고 있는 국회의정연수원 이야기다. 수백억 원을 들여 호화 콘도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다. 5000여 명의 국회 직원들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들을 위한 교육연수시설을 무슨 휴식위주의 콘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강화도에 있는 국회연수원은 고작 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다. 또 국회의 기본이 대화와 토론, 세미나 같은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됐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호화'니 '예산낭비'니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타 기관들에 실례가 될까 봐 일일이 비교를 안 해서 그렇지 규모와 건립비용 등이 결코 과하지 않다.

또 하나는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이른바 '과일나무'에 관한 것이다. 올봄 열린 국회마당 행사의 하나로 설치된 것으로, 대표적 설치미술가인 최정화씨의 작품이다. 작품 제작비·설치비가 8000만원가량 들었는데, 이것이 비싸다는 것이다. 그 예산은 국회 예산이 아니고 공연 주최 측의 것이다. 작품이 상징하는 것은 화합, 결실, 소통 등이다. 작가가 의도한 대로 "좋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낯설다", "생뚱맞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 무덤덤한 사람들도 물론 있다. 가을 공연이 끝나면 이전한다.

그런데 이 예술작품을 놓고 가격부터 따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가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강남의 어느 기업 앞에 있는 설치미술품은 미국 작가가 제작했는데, 총 180만 달러(약 21억원)가 들었다고 한다. 청계천에 설치된 미국 작가 부부의 조형물은 총 340만 달러(약 4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 제작·설치비 8000만원을 놓고 비싸다고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기야 국회 중앙홀에 전시돼 있는 백남준의 '소통, 운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저게 뭐냐?"며 시큰둥해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라고 권한과 역할을 주었으니 그들을 늘 감시하고 질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근거도 없고, 왜곡된 정보나 주장으로 온통 비난만 해댄다면 배겨 낼 사람이 없다. 굳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당한 지적과 비판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루 한생각 9월 2일

迷津寶筏(미진보벌) 좋은 나룻배처럼 훌륭한 책

살다 보면 길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생긴다. 앞은 강인데, 이 강을 건너는 나루는 대체 어디일까? 공자가 제자 자로(子路)에게 "나루가 어딘지 물어오라"고 한 데서 문진(問津)이라는 말이 생겼다. 논어 미자(微子)편에 나온다. 문진은 이상적인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학제간 연구모임인 문진포럼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단체다.

그런데 나루가 어디인지 알면 뭐하나? 건널 배가 있어야지. 나루를 몰라 헤매는데 좋은 뗏목이 있다면 얼마나 반가우랴? 바로 미진보벌(迷津寶筏)이다. 그런 뗏목처럼 좋은 책을 말하는 성어다. 비슷한 말에 암구명촉(暗衢明燭)이 있다. 어두운 거리의 밝은 촛불이라는 뜻이다. 책은 밝은 빛이며 훌륭한 배다.

보벌(寶筏)은 본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각벌(覺筏)이라고도 쓴다. 고해중생을 피안으로 건너게 해주는 불법이 보벌이다. 이백의 '춘일귀산기맹호연(春日歸山寄孟浩然)'시에도 보벌이 나온다. 그는 맹호연보다 12세나 적었지만 벗처럼 형처럼 잘 지냈고, 시도 여러 편 써 보냈다.

"관직을 세상에 버려두고/청산에서 부처님 설법을 만나네/엄숙히 깨달음의 길 열어/부처님 뗏목으로 미혹의 내를 건넌다/고개 위 나무는 절 기둥에 모이고/바위에 핀 꽃은 골짜기 샘을 덮네/탑 그림자 바다 속 달에 드러나고/절 누각의 기세는 강 안개 위로 솟누나/향기는 삼천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종소리 온 골짜기로 퍼져간다/연꽃은 가을이 되어 열매 가득 차고/빽빽한 소나무는 덮개가 둥글어진다/새들은 모여 법어를 듣는 듯/용은 찾아와 참선을 지키는 듯/부끄러워라, 유수의 운치를 따르지 못하고/함부로 백아의 현으로 들어가고 말다니"[朱紱遺塵境 靑山謁梵筵 金繩開覺路 寶筏度迷川 嶺樹攢飛拱 岩花覆谷泉 塔形標海月 樓勢出江煙 香氣三天下 鍾聲萬壑連 荷秋珠已滿 松密蓋初圓 鳥聚疑聞法 龍參若護禪 愧非流水韻 叨入伯牙弦]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BAE 배꼽 www.baekn.com

'여자를 울려' 마친 김정은

배우 김정은이 MBC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 종영 소감을 밝혔다. 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정은은 "작품이 끝났다는 것이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 그래도 시청률이 마지막까지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여자를 울려'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밥집 아줌마가 된 전직 강력반 여형사 덕인을 연기했다. 그는 애끓는 모성애를 연기한 것에 대해 "처음에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몰라 감독에게 물어보니 '너의 뒤에 대한민국 엄마들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니 연기할 때 용기가 났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또 막장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주말극 특성상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개되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흥미를 위해 이야기를 급조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자를 울려' 후속으로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자식들을 향해 통쾌한 복수전을 펼치는 이야기 '엄마'가 방송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온라인 와글와글



오류투성이 교과서, 고려시대 빨간 김치? "감수 제대로 한 거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사실 오류, 혼란을 줄 수 있는 모호한 표현, 비문 등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 그려진 고려시대 김치 그림이다. 이 삽화엔 조선 후기에 도입된 고추가 들어간 '빨간 김치'가 표현됐다.

온라인상에는 "어이가 없다. 신라인 주식이라면이라고 하지 그래?", "삽화가가 그림만 그려서 역사 상식이 부족했나 봐요. 그건 그렇고 감수한 사람들은 오류 못 잡고 뭐한 거죠?", "저 정도면 역사 왜곡이지. 초등학생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교과서 속 삽화도 신경 써야죠. 아이들은 글자보다 그림에 더 익숙하니까요", "감수는 돈 받고 이름만 올리는 건가? 오탈자만 잡은 거 아냐?", "삼겹살에 소주도 그리지 그랬냐", "어떻게 국사책 한 권 제대로 못 만드냐", "고려시대에 빨간 김치면 조선 중기엔 치즈등갈비가 밥상에 올랐겠군"등 지적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데스크 칼럼

조희연의 '사이버 병문안' 캠페인



이 은 호
경제국장

한국은 자타공인 활의 나라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로라 하는 신궁이 모름지기 한 사단은 된다. 하지만 굳이 일인자 신궁을 꼭 가리라고 한다면 다수는 이성계를 꼽을 것이다. 날래디 날랜 원나라 병사 70명이 고려군을 공격하자 어느 곳에선가 홀연히 그가 나타나 활을 쐈는데, 쏘는 족족 적의 얼굴 한가운데를 콕 콕 꿰뚫어 70명 모두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데 딱 70발의 화살만 필요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왜구를 소탕할 때도 그는 신궁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왜구를 이끄는 적장이 탱크같이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어 칼질을 해도, 화살을 쏟아부어도 끄떡없자 투구 윗부분 정중앙을 화살로 딱 맞혀 투구가 벗겨지게 한 뒤 아군에게 공격하게 해 그 문제의 왜장을 저승으로 보낸 것.

그런데 요즘 조희연 교육감이 내놓은 한 정책은 '이 사람이 혹시 전생에 이성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책이 마치 이성계가 과녁 한가운데에 화살을 정확히 꽂아넣은 것같이 실로 적확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놀라 자빠진 그 정책은 바로 '사이버 문병 캠페인'. 학교 사회를 상대로 SNS나 문자로 문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사실 아픈 사람에게 불끈 용기나 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병문안 갔다가 병에 걸리는 사례는 쌔고 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 10명 중 1명은 문병객이었다. 친척 병문안 갔다가 일가족이 한꺼번에 메르스에 감염돼 뿔뿔이 격리된 사례도 있다. 정 빼면 시체인 한국인들이 그놈의 정을 주체하지 못해 생겨난 병문안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많은 지인이 환자를 문병하는 한국 문화가 메르스 2차 감염 확산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한국의 병문안 문화가 국내외에서 우려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사이버 문병 캠페인이란 대단히 적확한 정책을 내놓았으니 그를 이성계와 비교하지 않을 길이 없다.

병문안에 의한 감염이란 웃지 못할 폐해를 막아보려고 사실 몇몇 병원은 이미 사이버 병문안을 시행하고 있다. '쾌유기원 카드'가 대표적. 과거 멀리 떨어져 있어 못 갈 때 보내던 '전보'에서 착안해 인터넷에 안부 글을 남기면 병원이 직접 예쁜 카드로 제작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쾌유기원 카드' 같은 사이버 병문안 정책을 시행하는 병원이 그야말로 극소수라는 점이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대형병원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5% 미만. 병원들이 사이버 병문안 시스템을 흔쾌히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 병원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감염 방지를 위한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 및 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 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분 국가감염관리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현명한 정책들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민관합동 캠페인 부분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병문안 문화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매한 캠페인이 아니라 사이버 문병 캠페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문병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끝으로 조 교육감 정책과 복지부 정책을 비교해 보자. 조 교육감은 복지 비전문가다. 복지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캠페인의 방향성을 사이버 병문안으로 정확히 잡았다. 반면 복지부는 그저 흐리멍덩한 캠페인 방안만 내놨다. 이런 복지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정책 생산 수순상 앞으로 복지부가 이번에 나온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때 사이버 병문안에 대한 뭔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leeeunho7@

객석

박 혜 림 미디어컴 미디어플래너 대리

나를 새롭게 채우기 위해 비워두기



가끔 충동적으로 옷장을 열어 최소 근 2~3년간 꺼내보지도 않았던 옷들을 골라내는 경우가 있다.

1. 앞으로 그 누구도 절대 안 입을 것 2. 잘 세탁하면 두어 번은 입어질 것 3. 난 안 입겠으나 누군가에겐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한다.

그후 1번은 헌 옷 수집함에, 2번은 세탁기나 세탁소로, 3번은 깔끔한 종이봉투에 넣어 두곤 한다.

하지만 그러고도 여전히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옷장과 수납장에 그득 들어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을 끌어안고 살아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미련을 둔 채로 지낼까?

유독 '버리기'를 잘 못 하는 지인들이 있다.

버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 소유의 물건뿐 아니라 일상적인 약속, 관계, 업무에 있어서도 정리나 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상당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다.) 휴가 중에 메일을 들여다 본다거나, 하루에 2~3개의 약속 또는 스케줄을 만들어 두는 등.

얼마 전까지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휴가지에서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고, 회식과 연인과의 만남이 겹치는 가운데서 우물쭈물하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그 어느 것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비난하곤 했다.

아마도 그래서 나는 생각이 날 때마다 '버리기'를 하고, 아무 일도, 약속도 없는 날을 한 달에 하루 이틀쯤 만들어 두게 된 건 아닐까 한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말처럼, 가끔은 덜 중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나를 채워 올 것들을 위해 얼마간 그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어떨지.

기자수첩

유 지 만 산업2팀/redpill@

유가 리스크 줄여야 성장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유화업계는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지난해 말 유가 폭락에 기록적인 손실을 입은 후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유화업계는 손쓸 틈 없이 떨어지는 국제유가에 고스란히 당했다. 약 3개월 만에 국제유가가 절반으로 내려가면서 극심한 재고손실을 입었고, 이는 기록적인 적자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을 회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상반기에만 1조30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에 성공했다.

화학업계도 마찬가지다. 선두주자인 LG화학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7% 늘었으며, 롯데케미칼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에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다시 불안한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정유업계 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정제마진의 하락과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경쟁국들의 정제설비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의 특성상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유화업계가 안주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있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화업계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나마 최근 업계가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유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에 나선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각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늘리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업계 전반에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요동치는 유가에 산업 전체가 매번 휘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가 리스크를 줄여야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김경아의 소곤소곤

자본시장부 차장

단타·시장혼란 부추긴 국민연금



"국민의 돈을 장기간 굴리는 공적 연금기관에서 일일 수익률을 평가해 단타 투자를 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운용사에 근무하는 건지, 부티크에 근무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최근 만난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 수익률 일일평가 제도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운용사들의 속앓이 배경이 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일일 평가 제도는 15년 만에 바뀐 것이다.

원래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 정기평가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며 위탁운용사들의 3년, 5년 중장기 성과를 비교해 최상위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을 매겨 자금을 배정해왔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사들에게 위탁한 자금만 총 45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운용한다는, 장기투자 철학이 뛰어난 '에이스급 운용사'로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운용사들의 주식 자산 1년 수익률을 날마다 점검하는 일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자, 기존에 3년, 5년 수익률로 위탁 받아온 운용사에서 자금 회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일례로 펀드의 1년 영업 수익률이 3영업일 이상 벤치마크(BM) 대비 4%포인트를 하회할 경우 1차 주의 단계로 신규 자금 배정을 제한하고, 7%포인트를 밑돌면 2차 경고 단계로 위탁자금 30%를 회수한다. 여기에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준 뒤 다시 3영업일 동안 수익률이 BM 대비 9%포인트르 하회하면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식이다.

A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시장을 이겼어도, 지난해 성과가 부진하면 무조건 위탁자금을 토해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단타로 운용사들의 위탁자금을 평가하다 보니, 자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 1조 이상 위탁 자금을 굴리는 운용사들의 펀드매니저들은 최근 밤을 샐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도 "올해 만약 20% 이상 성과를 냈어도, 내년 같은 시기에 20% 이상 아웃퍼폼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자금을 회수당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내부에서 그간 국민연금 위탁운용 펀드는 에이스급 펀드매니저들이 독점해왔는데, 이제 아무도 국민연금이 위탁한 자금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일일평가 시스템으로 위탁운용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게 자금을 회수 당하는 운용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간 기관자금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운용사들은 회사의 정체성을 바꿔야 할 위기까지 처했다고 하소연한다.

400조원이 넘는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일일평가 기준으로 운용사들의 단기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장기투자 철학과는 맞지 않는 모순적 행동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국민의 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꾸준한 장기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자본시장을 지켜온 운용사들은 초단타 매매 평가에 울상을 짓고 있다. 운용사들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국민연금의 일일평가 시스템이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시점이다. kakim@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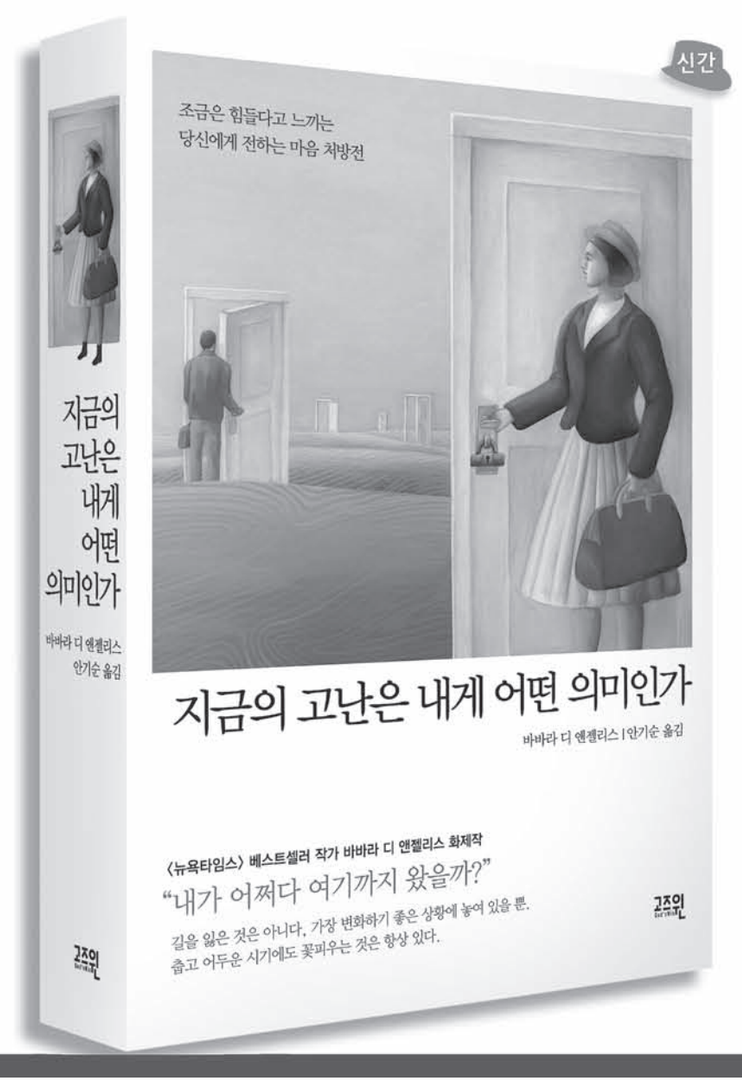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6701	국제팀	(02)799-2643	사진팀	(02)799-2646
경제국	(02)799-2650	산업국	(02)799-2663	시장국	(02)799-2665
자본시장부	(02)799-2658	문화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온라인국	(02)799-2664	콘텐츠팀	(02)799-2655	모바일팀	(02)799-264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조금은 힘들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 처방전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 412쪽 | 14,500원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멈춰 서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획기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 반스앤노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화제작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춥고 어두운 시기에도 꽃피우는 것은 항상 있다.

당신을 닮은 좋은책 고즈윈 TEL.02)325-5676

"한국 문화유산 보존" 8억 기탁한 美게임사

온라인 게임 개발 라이엇 게임즈
문화재 환수·관리·체험교육 등
2012년부터 4년 연속 총 30억원
국내 서원 3D 원형기록 지원도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왼쪽)와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문화재청

PC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유통사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8억원을 기부했다. 한국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가 나선 것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후원 약정식을 진행했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한국 문화유산 보호와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는 약정식을 통해 해외 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체험교육, 행사 후원 등의 프로젝트를 위해 8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놓은 후원기금은 총 30억원에 달한다.

특히 라이엇 게임즈는 이전부터 문화재 환수에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받은 전체 기부금은 약 17억원가량 이었으며 이 중 라이엇 게임즈가 후원한 금액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7억400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라이엇 게임즈는 국외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국내 문화재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후원을 지속한다.

지난해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석가삼존도' 환수에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힘을 보탠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해외 문화재 환수 관련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거론되고 있는 국내 주요 서원 9곳 중 3곳에 대한 3D 디지털 원형기록 사업 지원도 발표됐다.

경북 영주시의 소수서원, 충남 논산시의 돈암서원, 전남 장성군의 필암서원 등 세 곳이 지원 대상이다.

3D 디지털 원형기록 사업은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작업이며 추후 훼손되거나 재난재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기초적인 정밀 데이터를 제공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문화재 지원활동에 대해 라이엇 게임즈 미국 본사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대표는 "한국 문화재 후원은 라이엇 게임즈 본사에서 호평받는 일 중 하나"라며 "앞으로 진행할 사회공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꼽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젊은이들이 과거와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창사 20주년 맞은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 "2020년 맥도날드 능가하자"

제너시스 BBQ그룹은 1일 창사 2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 소재 치킨대학에서 '대한민국 1등 20년! 세계 1등 2020년!'을 주제로 축하 기념행사를 가졌다.

BBQ는 20주년 기념 닭 석상 제막식, 기념식수, 'Give Walk, Give Love! 함께 걷기' 기부행사, 우수직원 표창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윤홍근 회장은 이날 "1995년 회사를 설립할 당시 가슴속에 품은 맥도날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만들겠다는 선명한 비전을 잊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다"며 "비비큐는 창사 4년 만에 1000호점 돌파라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하여 한국 토종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BBQ는 지난 2년간 내수 시장에서 평균 30% 신장했고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20주년 기념식에서 윤홍근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제너시스 BBQ그룹

BBQ는 '2020년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라는 비전 달성을 염원하며 2020km 걷기를 목표(1인 약 5km)로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애 기자 lsa@

"참된 나눔 실천 개인·기관 적극 지원"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좋은세상 나눔이상' 시상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좋은세상 나눔이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김창기 이사장과 외부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좋은세상 나눔이상'은 1%나눔재단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와 기관을 격려하고 이를 알리고자 노력해온 언론인들을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로는 △개인상에 최준기(사천시장애인부모회), 길종관(선우치매센터), 최민량(해맑음보호작업시설), 유영준(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 윤세화(천마재활원) △기관상은 서울 한빛사랑후원회, 서울 시립평화로운집, 익산 동그라미, 부여 삼신보육원, 전주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언론상은 부산일보 2015 연중기획 나눔팀, KNN 보도국 사람인 해피뉴스팀 △공로상은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팀이 선정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고용부 '직업능력의 달' 97명 숙련기술인 포상

최창묵 탑타임 대표 은탑산업훈장

정부가 평생 숙련기술 연마와 직업능력 개발에 열정을 쏟아온 '시계 명인' 최창묵 명장 등 6개 분야의 유공자 97명에게 훈장·포장·표창을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어 사업주, 근로자, 우수 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교원, 인적자원개발(HRD) 종사자 등에게 시상했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명품시계 '탑타임' 대표 최창묵 명장이 선정됐다. 최 명장은 시계 산업에 몸담은 지난 44년간 다수의 시계 수리 공정 및 품질 개선을 통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1975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시계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지도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특강, 검정용 시계 3000여개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후학 양성과 사회 공헌에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경쟁력을 향상시킨 하스테크의 허남균 대표가 수상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삼성전기의 성천모(51) 수석연구원이, 석탑산업훈장은 한국능력개발원의 김윤세 대표가 각각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이들 4명이 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포장(7명), 대통령 표창(10명), 국무총리 표창(21명), 고용부 장관 표창(55명) 등이 수여됐다.

전민정 기자 puri21@

인사

◆행정자치부 ◇실장급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성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배진환 ◇국장급 △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장 양복완 ◇과장급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부장 조상명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장 원성규

◆강원도 △총무행정관 김만기 △기획관 김보현

◆한국은행 △공보관 서봉국 △발권국장 박성준 △별관건축본부장 김상기 △국제협력실 김준태 △인사경영국 김준기 △인사경영국 김진용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정지영

◆코트라 ◇상임이사 승진 △전략마케팅본부장 이태식

◆국토연구원 ◇본부장 △국토계획·지역연구 이용우 △도시연구 김태환 △주택·토지연구 천현숙 △국토인프라연구 이상건 △국토정보연구 사공호상 △기획경영 이원섭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정일호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권영섭 △지역경제연구센터장 안홍기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장철순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이상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왕건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명수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이재용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토지정책연구센터장 이형찬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김성일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고용석 △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 오성호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임은선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급 △경영기획 노병규 △인터넷산업정책 조윤홍 △개인정보보호 김원 △사이버침해대응전길수 ◇단장급 △인터넷산업단장 이완석 △침해대응단장 주용완 △118사이버민원센터장 이계남 ◇팀장급 △청사건립팀장 남환우 △산업정책기획팀장 오용석 △사이버보안기획팀장 최광희 △산업보안대응팀장 서정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기술개발 방대규 △기술기반 조현춘 △경영지원 전병열 △기술정책센터장 양훈철 △해상풍력추진단장 성창경 ◇실장 △감사 조용희 △기술총괄 이화웅 △에너지신산업 이재설 △신재생에너지 기성섭 △전력원자력 방기성 △성과확산 김홍민 △기술정보 김현수 △국제협력 김현경 △인력양성 정승영 △경영혁신 홍선표 △기획예산 이성주 △인사총무 제갈형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승진 △경영기획본부장 강영태 △산업지원본부장 최윤산 김경곤 ◇파트장 △부산지역본부 마케팅 지일권 △상품경쟁력 강화 TFT 유석용

◆한국BMS제약 △사장 박혜선

◆포스텍 △부총장 조무현 △대학원장 김병현 △기획처장(겸 대외협력처장) 송우진 △교무처장 최윤성 △입학학생처장 전상민 △학술정보처장 이승용 △산학협력단장(겸 연구처장) 정완균 △엔지니어링대학원장(대행) 이을범 △정보통신대학원장(대행) 김대진

◆한국방송통신대 △학생처장 노형규 △중앙도서관장(겸 역사기록관장) 박영숙 △정보전산원장(겸 정보화책임관) 이성철 △원격교육연구소장 임재홍 △서울지역대학장 백삼균 △광주·전남지역대학장 이동주 △학보사주간 변지원

◆충북대 △장애지원센터장 엄기선 △인문학연구원장 겸 인문학연구소장 고봉만 △사회과학연구원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최영출 △바이오연구소장 오병운 △천체물리연구소장 한정호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겸 의학연구소장 김형규 △기업정보화지원센터소장 류관희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전항배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 겸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 이준수 △산학협력단 부설 충북야생동물센터장 나기정 △산학협력단 부설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앱센터장 최경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 김경균 △교학제2부처장 김선애 △음악원장 황성호 △영상원장 한성수 ◇과장 △음악원 음악학 허영한 △연극원 극작 김광림 △영상원 영화 김형구 △무용원 실기 전미숙 △미술원 조형예술 이주용 △미술원 건축 김태영 △미술원 디자인 김성룡 △전통예술원 연희 김덕수 ◇주임 △음악극창작협동과정 박상현 △영상원 예술전문사 오명훈 △미술원 예술전문사 곽남신 △학생지원센터장 김선애 △미디어콘텐츠센터장 양승무 △산학협력단장 윤정섭 △문화예술교육센터 소장 이강호 △신문사 주간 권희철 〈신임〉 △음악원 기악과 김현미 채재일 △연극원 연출과 김동현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조충연 △영상원 영상이론과 하승우 △미술원 디자인과 조현 △전통예술원 음악과 유경화

◆아주경제 △문화연예부장 조성진

◆조선비즈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김주현 △부동산유통부장 전태훤

◆세계미디어플러스 ◇세계파이낸스 △국장 임정빈 △부국장(겸 산업팀장) 송광섭 △기획위원 오홍근

◆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장 오영주

부음

▲김갑섭(행정자치부 대전청사관리소장)·영섭(전 교사)·형섭(자영업)씨 모친상 = 1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62-670-0034~6

▲이시홍(현대자동차 혜화동지점장)·시진(한국환경공단 이사장)씨 모친상 = 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010-2230

▲김양삼(영화평론가·전 경향신문 문화부장)씨 별세 = 1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13

▲김학균(OBS 보도국장)씨 부친상 = 1일, 수원연화장, 발인 3일 오전 8시, 031-218-6591

▲이정훈(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씨 장인상 =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50분, 02-2258-5940

▲강석규(호서대 설립자)씨 별세, 일구(호서대 총장)·철구(동우건축그룹 회장)·명희(한남대 교수)·순구(목사)·명선(목사)씨 부친상 =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2-2227-7580

허창수, DMZ 지뢰 폭발 부상장병 위문

〈전경련 회장〉

치료지원금 4000만원 전달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문했다.

전경련은 2일 허 회장이 분당서울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 각각 입원 치료 중인 하하사(21)와 김 하사(23)를 차례로 찾아 문병하고 치료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상에 있는 두 사람에게 허 회장은 "두 젊은 용사에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와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참군인의 모습을 보았다"며 "두 사람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치료와 재활이 고되겠지만 잘 견뎌내고 두 사람의 희망대로 다시 복귀해 경제선진국의 초석인 국방을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허 회장은 두 하사에게 각각 전경련 지원금 1000만원에 남촌재단 위로금 1000만원을 보태 인당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1사단을 통해 전달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한화, 소외계층 위한 수박 수확 구슬땀

㈜한화는 지난달 28일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를 찾아 도농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한화는 3년째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와 협약을 통해 수박을 직매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직매한 수박을 사회취약층에게 기증하는 도농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박재홍 대표이사 외 40여명의 임직원은 이날 예산에서 직접 수확한 수박을 서울시 서대문구와 중구의 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재홍 ㈜한화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직원들과 수박을 나르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한화는 앞으로도 꾸준히 도농연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LS그룹 '참신한 시각' 제1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LS그룹은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제1기 LS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활동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로, 글, 사진, 영상 등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특기를 가진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선발된 기자단은 그룹 내 다양한 행사와 산업현장 등을 탐방하여 취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나 SNS에 올려 임직원 및 누리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열정이 뛰어난 우수 학생에게는 포상 및 해외 취재의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현재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LS 대학생 기자단 모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임상민 대상그룹 상무
12월 금융전문가와 화촉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차녀 대상 임상민(35·사진) 상무가 금융전문가 국유진(30)씨와 오는 12월 28일 결혼한다.

대상그룹은 1일 임상민 상무의 결혼에 대해 "양가의 뜻에 따라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청한 가운데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계획이었으나 의도치 않게 외부에 결혼 계획이 먼저 공개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임 상무와 화촉을 올리게 될 국유진씨는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금융 전문가다.

현재는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친은 국 균 전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대표(현 경영자문위원)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재미와 의미… 관객이 공감… 그래서 '천만영화'

2004년 2월 19일. 한국영화 흥행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03년 12월 24일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이다. 1993년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100만 관객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강우석 감독은 "내 평생에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를 볼 줄 전혀 몰랐다. 정말 기쁘다. 내가 감독한 영화가 1000만 영화로 기록된 것도 기쁘지만, 한국영화가 그만큼 수많은 관객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여서 더욱더 기쁘다"고 가슴 벅찬 소감을 밝혔다.

그로부터 11년이 흘렀다. 지난 8월 15일 최동훈 감독의 '암살'과 8월 29일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 달 사이에 두 편의 1000만 영화 등장이라는 초유의 영화적 사건이 벌어졌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17편으로 이 중 '아바타'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겨울 왕국' '인터스텔라' 등 외국 작품은 4편이다.

'실미도'로 1000만 관객 기록을 수립한 이후 지난 11년 동안 13편의 한국영화가 꿈의 흥행 숫자인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해 1761만 관객이 본 '명량'을 비롯해, '국제시장' '도둑들'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암살' '태극기 휘날리며' '변호인' '해운대' '실미도' '괴물' '왕의 남자' '베테랑' 등 13편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해운대'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과 '암살'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이 두 편의 1000만 영화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 류승룡은 '명량'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3편의 영화에 주연 혹은 주연급으로 출연했으며, 송강호, 설경구, 전지현, 이정재, 황정민은 두 편의 1000만 영화에 주연을 맡았다.

무엇보다 오달수는 '괴물' 목소리 출연을 비롯해 '국제시장'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암살' '베테랑' 등 7편의 1000만 영화에 출연하는 전인미답의 엄청난 신기록을 세웠다. 1761만의 관객이 본 '명량'은 1357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1000억 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수익률 면에서는 순제작비 35억 원, 홍보 마케팅비를 포함한 총제작비 58억 원이 들어간 '7번방의 선물'이 최고로 91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수익률이 무려 15배에 달했다.

2004년 '실미도' 첫 1000만 관객 돌파 '베테랑'까지… 11년간 총 13편 기록 스타·스토리… 마케팅도 흥행 한몫 시대 관통하는 메시지 영화화 공통점

그렇다면 13편의 1000만 한국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7번방의 선물' 등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암살' 180억 원, '태극기 휘날리며' 190억 원, '명량' 180억 원, '해운대' 180억 원 등 대부분의 1000만 영화가 100억 원 이상 투입된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점이다. 또한 '명량' 등 CJ 5편, '암살' 등 쇼박스 4편, '변호인' 등 NEW 2편 등 1000만 영화 대부분이 대형 영화 배급사가 투자와 배급을 한 영화라는 점도 비슷하다.

'명량'의 최민식, '괴물' '변호인'의 송강호, '해운대' '실미도'의 설경구, '베테랑' '국제시장'의 황정민,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이병헌, '7번 방의 선물'의 류승룡, '도둑들'의 김윤석 김혜수, '암살'의 하정우 등 주연들이 스타성보다는 빼어난 연기력을 가진 연기자라는 점도 1000만 한국영화를 관통하는 공통점이다.

1000만 관객 영화는 국민 10명 중 2명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부터 장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소구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화제와 이슈, 논란을 창출한 유사점도 갖고 있다. '명량'의 경우 세월호 대참사로 드러난 대통령부터 장관, 정치인의 리더십과 책임감 부재가 흥행요인으로 작용했다. '암살'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상황과 친일청산이 안 된 현실,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점, '베테랑'은 을의 유쾌한 반란과 재벌에 의해 자행되는 슈퍼갑질, '국제시장'은 세대 간, 진영 간 촉발된 논쟁 등이 흥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000만 한국영화는 무엇보다 재미와 의미를 잘 아우르는 완성도와 함께 특유의 문화 소비 쏠림 현상을 잘 이용한 마케팅도 한몫했다.

지난해 '명량'은 17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2000만 명에 육박했다. 이제 2000만 관객 한국영화의 등장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영화 종사자와 관객이 기대하는 흥행 목표다.

배국남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또 연기력 논란… 김태희, 정말 '민폐녀'일까



'20% 돌파 용팔이, 김태희 연기력 논란이 약' '잠 깬 김태희, 연기력 논란 잠재울까' '용한 돌팔이도 김태희는 못 살리네'…. 신문과 인터넷 매체, 방송 등 대중매체와 시청자, 네티즌의 김태희 연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다. 물론 비난과 비판이 부당한 부분이 있다. 비난과 비판이 김태희 연기라는 텍스트의 정교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편견과 주관적 호불호의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판의 텍스트다. 김태희 연기에 대한 평가 중 상당 부분이 현재 방송되고 있는 SBS 드라마 '용팔이'의 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동안 부족한 연기력을 드러낸 부분을 강조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물지마'식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김태희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과 편견 역시 현재 그녀에 대한 연기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작품의 정교한 분석 여부와 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도에 따라 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연기는 배우가 작품 속에서 행하는 행동과 대사의 방식이다. '스타-이미지와 기호'의 저자 리처드 다이어가 지적한 것처럼 캐릭터를 잘 창조하고 진정성 있게 재현하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좋은 연기자일 것이다. 영화학자 리 볍커는 "위대한 배우는 진정성 있는 연기로 캐릭터의 내적 확신과 지식을 필름 혹은 TV 화면을 가로질러 관객과 시청자 의식 속에 도달시키는 연기자"라고 말한다.

연기는 크게 신체의 움직임이 강조되는 외면적 연기나 표정이나 말로써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는 내면연기가 있다. 캐릭터를 창출하고 표현 방식도 디드로와 코퀠랭은 연기자가 결코 배역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연기를 타인의 관찰이나 전통적인 기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연기자가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로 가능한 한 완전히 살아야 하며 연기자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연기를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론이 정교하게 발전돼 메소드 연기로 진화했다.

절대적인 연기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와 장르에 따라 강조되거나 선호하는 연기 스타일은 변모한다. 일반적으로 목소리(발성), 표정, 몸짓, 신체의 자세, 신체의 운동 등을 보고 연기자의 연기력을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성과 표정이다. 특히 클로즈업이 강조되는 TV 드라마의 경우는 표정이 매우 중요하다.

김태희가 '용팔이'에서 맡은 배역인 여진은 회사를 차지하려는 이복오빠와 경영진의 음모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3년간 강제로 수면상태를 유지하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복수에 나선 재벌 상속녀다. 외면과 내면을 오가는 연기가 필요하다.

6회까지 김태희의 등장 장면과 연기 분량이 적었다. 그리고 수면상태여서 누워 있는 연기를 많이 해야 했다. 대사 역시 많지 않았다. 이를 두고 누워서 고액 출연료만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 있는 지적이다. 배우는 누워 있는 연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개연성을 부여해 시청자들에게 캐릭터의 진정성과 스토리의 필연성을 전달하면 된다. 등장시간과 비중, 장면의 내용이 아닌 연기의 진정성 여부에 평가와 분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진이 깨어난 7회부터 김태희의 등장 시간과 연기 장면이 늘어났다. 수면상태에서 행복했던 때와 불행을 오간 상황, 이복오빠 등에 대한 증오와 공포 등 다양한 감정의 문양을 표정 연기 하나로 표출해야 했던 김태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닌 경직된 부분이 드러났다. 하지만 여진이라는 캐릭터의 창조와 재현은 무난한 편이었다. 김태희의 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발성이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어조 변화나 감정을 오롯이 살리는 대사 연기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김태희는 연기력 논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분명 '용팔이'의 김태희의 연기력과 캐릭터 창출력은 '장옥정, 사랑에 살다' '마이 프린세스' '아이리스' 때보다 진화했다.

김태희는 "연기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연기가 재미있어 전문가나 시청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하고 공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고 말한다. 김태희는 분명 '용팔이'에 출연하며 비판과 비난을 받은 연기력 문제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자의 몫이다. 김태희가 비판을 건강하게 수용해 시청자가 인정하는 연기력을 보여준다면 빼어난 스타성에 연기력까지 갖춘 경쟁력 있는 진정한 스타로 부상할 수 있다.



배컵이 만난 사람

개그우먼 박경림

"男들은 모르는 속사정… 우리끼리 '톡톡' 털어요"

내달 7일 '여자들의 사생활 시즌2' 입담·춤·노래·연기… 신개념 콘서트 '초호화 게스트'는 또다른 볼거리 "반드시 웃겨드리겠다" 호언장담

박경림을 만나면 없던 힘도 생긴다. 만나는 사람에게 즐거운 기운과 밝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힘들 때도 있으련만 그녀는 늘 상대를 힘이 나도록 배려한다. 그녀가 요즘 여성들에게 행복 바이러스와 활기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토크 콘서트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는 10월 7일부터 5일간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여는 여자의, 여자를 위한, 여자에 의한 신개념 토크 콘서트 '여자들의 사생활 시즌2-잘나가는 여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제가 여성이고 엄마이고 딸이고 아내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여성 특히 주부들은 스트레스 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정이 밝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트레스 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여자들의 사생활'이라는 타이틀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도 열게 됐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박경림 혼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 위기대처능력, 집중력, 그리고 장시간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풍부한 내용과 진행 실력을 갖춰야 한다. 토크 콘서트가 부담스럽지 않으냐는 질문에 박경림은 "지난 1999년 서울 대학로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토크 콘서트는 관객과 함께 꾸미는 형식이기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 결혼, 출산 등으로 못 하다 지난해 다시 토크 콘서트를 열었지요. 관객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힘이 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커요"라고 답한다.

박경림은 '인맥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전화기에는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그녀의 토크 콘서트의 볼거리 중 하나가 출연 게스트다. 지난해 토크 콘서트에도 정우성 이문세 옥택연 홍경민 장혁 신승훈 인피니트 조인성 조성모 최진혁 김태우 등 초호화 게스트들이 출연해 관객과 함께했다. "올해 역시 게스트가 많이 출연합니다. 무조건 게스트를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섭외합니다. 현재 여성들이 분야별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싶은 연예인, 이야기하고 싶은 스타 등등 주제에 따라 게스트를 초대해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여자라는 이름보다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는 이 땅의 여성들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토크 콘서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박경림은 거침없는 입담, 춤, 노래, 연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생각이다. "올해는 토크 콘서트 전체 콘셉트를 하나의 드라마로 꾸미려고 합니다. 물론 저와 관객들이 함께 꾸미는 드라마지요."

박경림은 토크 콘서트의 진정한 주역은 관객이라고 말한다. "제 콘서트의 관객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만을 단순히 보는 수동적 관객이 아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무대를 꾸미는 적극적인 관객이자 토크 콘서트의 주체입니다. 올해도 관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박경림은 지난해 5회 공연 중 평일 2회 공연을 파격적으로 오전 11시에 막을 올렸는데 올해도 평일 2회 공연은 11시에 시작하겠다고 했다. "주부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 출근시킨 뒤 가장 편한 시간이 오전 11시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도 평일 공연 중 2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1년여 준비하고 지난해 쌓은 노하우를 더한 이번 토크 콘서트로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웃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행복하겠다는 박경림은 공연에 가겠다는 기자에게 "반드시 웃겨 드리겠다"고 답한다. 분명 박경림은 기자를 웃길 것이다. 그녀는 약속을 잡 잘 지키는 연예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산운 아펠바움 거실

산운 아펠바움 식당·주방

산운 아펠바움 외관

마천루 내려와 자연으로, 대한민국 1% 럭셔리 '전원일기'

부자들의 집

❼ 판교 '산운 아펠바움'

최고가 80억원대 고급 타운하우스

청계산·운중천 등 자연친화적 입지

서울 부촌 버금가는 풍수지리 명당

모든 내장 마감재 친환경 자재 사용

차분함·자연미 돋보이는 인테리어도

대부분 자가 거주… 매물 거의 없어

'돈 있어도 구하기 힘든 집'으로 불려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초고층 랜드마크 주상복합 인기가 추락하면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구름 위의 집 '펜트하우스'를 등지고 고급빌라나 단독주택으로 이주해나가는 행렬이 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부촌의 대명사로 꼽히던 타워팰리스조차 거래 건수가 크게 줄고 거래가격도 꾸준히 하락하는 등 초고층 주상복합의 투자가치가 낮아진데다 좁은 실내에 염증을 느낀 수요자들이 고급빌라나 단독주택을 찾으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가 80억원에 최고의 명당터 자랑 = 지난 2010년 SK건설은 서판교 산운마을 1만9146㎡ 규모 부지에 총 34가구의 최고급 단독주택 '산운 아펠바움'을 분양했다. 세대별로는 대지면적 330~596㎡, 공급면적 365~792㎡, 전용면적 176~310㎡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30억원 후반에서 최고 80억원대를 형성했다.

당시 전용 176㎡는 31억9000만원, 289㎡는 40억5000만원, 299㎡는 53억3000만원, 305㎡는79억원, 309㎡는 62억8000만원, 310㎡는 80억원에 육박했다. 발코니 확장 등 부대공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또한 2012년에도 SK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2 일대에서 타운하우스형 고급빌라 '판교 운중 아펠바움'을 분양했다. 1·2단지로 나누어 공급했고 지하 1층~지상 4층 5개동에 총 28가구로 구성됐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했다.

당시 이곳은 하회마을, 외암마을, 양동마을, 낙안읍성 등 국내 전통 4대 명당이나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성북동, 한남동 일대보다 풍수지리적으로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운 아펠바움은 국내 최초로 단독 주택형 게이티드 하우스로 지어졌다. 게이티드 하우스란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입주민들이 건물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할 생활을 할 수 있는 고급 주거단지를 의미한다.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지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철저히 통제함과 동시에 세대로 진입하는 도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등 프라이버시 확보와 철통보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 당 자동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됐고 피트니스 센터 등을 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섰다.

단지 내에는 생태 수로와 생태연못, 생태습지 등이 조성됐고 가구나 벽지, 주방 등에 쓰인 모든 마감재도 고급 친환경 자재가 사용됐다.

마이너스옵션(인테리어 및 마감) 금액만 평균 3억8000만원이나 됐고 만약 계약자가 마감재를 직접 골라 시공하면 그만큼을 분양가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시공됐다.

하지만 제품의 내부를 살펴보면 화려함보다는 차분함과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전언이다. 바닥 마감부터 벽지, 천장까지 대부분의 마감재가 빛이 나거나 화려한 마감재를 쓰기보다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 목재가 들어간 바닥이나 방문, 신발장은 자연 상태의 나무무늬가 그대로 들어간 마감재를 사용했고 대리석으로 구성된 벽면도 가공을 최소화한 상태로 들어서 있다.

◇판교 인기에 원해도 구하기 힘들어 =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는 강남 대체지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강남 부자들이 대거 이동한데다 부촌의 상징인 기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부촌의 면모를 속속 갖춰나가고 있다.

판교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와 서울~용인 고속도로 서판교IC가 인접해 있고, 분당~수서 고속도로,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차로 이동할 경우 강남에 불과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답게 주거환경은 여느 신도시에 비해 우수하다. 판교 신도시의 녹지율은 37.3%로 분당(28.9%), 일산(22.5%)보다 월등하며 특히 서판교 지역은 운중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청계산과 금토산 공원, 남쪽에 남서울CC가 감싸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때문에 판교의 '아펠바움'은 '돈 있어도 못 사는 주택'이 됐다.

현재 이곳은 입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매매는 물론 전·월세 등 부동산을 통한 거래실적이 거의 없다. 입주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매물이나 전월세 물량이 나오는 일반 고급주택과는 달리 외부에 매물 자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이 입주해 있는 대부분이 자가(自家)로 거주 중이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월세 문의는 꾸준하다는 게 일대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판교 운중동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강남에 사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온다"며 "최근 20억원이 훨쩍 넘는 전세보증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지만 (매물 자체가 없어) 헛걸음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산운 아펠바움 분양관계자는 "강남의 고급빌라나 주상복합의 경우도 전월세 비율이 보통 50% 이상 된다"며 "하지만 산운 아펠바움이나 운중 아펠바움은 최초 계약자가 직접 거주하다 보니 매물이 나오지 않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정용진 신혼집' 입소문 판교 단독주택 '신흥 부촌'

성남 분당구 판교·운중·백현동 일대…서울 강남 30분 거리

윤주화·문규영·이건영 등 대기업 CEO·총수들에게 인기

권상우·김보성·임창정·김영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

도심 속 고층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생활공간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복잡한 도심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조용한 동네가 각광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판교다. 판교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운중동·백현동 일대 약 930만㎡에 조성된 2기 신도시로 분당·일산·평촌 등 아파트로 뒤덮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감안, 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해 조성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은 지난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주택용지 1352필지를 분양했다. 면적은 231~264㎡대가 가장 많다. 이 중 70% 이상의 필지에서 단독주택이 완공됐거나 단독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주택마케팅회사 이도기획 이시정 대표는 "최근 판교 단독주택 시장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700만~800만원 정도"라며 "231㎡ 주택 한 채를 짓는데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해 12억~13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곳은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30여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운중천과 금토산을 끼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이 때문에 답답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꿈꾸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정·재계 인사들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대거 살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간격을 둔 생활 공간을 원하는 유명인들의 특징 때문에 이곳은 고층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이 고급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윤주화 삼성물산 사장 | 권상우 영화배우

그중에서도 1000여 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선 경기도 판교신도시 운중동 일대는 요즘 수도권에서 '핫한' 도심형 단독주택 단지로 꼽힌다. 우선 이 부근 일대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부촌'으로서의 인식이 각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용진' 효과다.

지난 2011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결혼 후 신혼집을 서판교 일대로 정한 것과 함께 삼성물산 윤주화 사장, 아주산업 문규영 회장, 대한제분 이건영 부회장, 삼양인터내셔날그룹 허광수 회장 등 다양한 기업 CEO 및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도권의 비버리힐스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구축됐다.

여기에 지난해 부지 매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외에 배우 신하균을 비롯해 권상우, 김영철, 김보성, 임창정 등 유명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성 초기 주 수요층이 50~60대였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유입도 늘고 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인기에 편승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대표는 "판교의 경우 서울 도심과 가까워 출퇴근하기 편리하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올라 지금은 70% 이상 입주를 마쳤다"면서 "특히 판교 운중동 단독주택은 끝물이라고 봐도 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규모 7 지진에도 '안전'… 국내 최고층 '서울 랜드마크'

〈555m 높이 123층, 2016년 완공〉

우리 회사 최고 건축물 ❼ 롯데건설 '롯데월드타워'

국내에서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내년 준공된다.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다. 준공 기준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최고 높이 빌딩은 인천 송도에 들어선 동북아 무역센터(NEAT Tower)다. 하지만 이보다 200m 더 높은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워낙 높다보니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든, 송파 인근 위례 신도시에서든 그 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 7위의 롯데건설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초고층 사업이다. 특히 2011년 착공에 들어간 롯데월드타워가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타워는 123층, 555m의 국내 최고층 건축물로 롯데가 단순시공을 넘어 기획, 설계, 시공, 공사관리, 감리, 건물 운영관리 등 공사 및 운영의 모든 과정을 도맡았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분쟁사태에도 일본에서 귀국해 가장 먼저 찾은 사업장이 이곳이다. 그만큼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롯데건설은 앞으로 국내외 초고층 건설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첨단 기술 집약체 롯데월드타워 =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될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위해 롯데건설은 '구조설계기술', '건축재료 기술', '디자인설계 능력' 등 초고층빌딩 건축 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롯데월드타워는 단단한 기초를 위해 화강석 암반 위에 4200여톤의 철근과 8만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투입한 대규모 MAT 기초공사를 시행했으며,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의 2.5배, 축구장 크기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초고층빌딩 건설은 내풍 및 내진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롯데월드타워는 최대 순간 풍속 80m/s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리히터 규모7 수준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역시 적용됐다. 또한 초정밀 측량기술이 필요한 만크 '위성측량 수신기'와 '지상 기준국'을 설치했으며, 4대 이상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측정정보를 받아 오차를 바로잡는 '위성측량시스템(GNSS)'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층 빌딩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가설하는 거푸집도 내구성과 안정성을 비롯해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첨단 'ACS(Auto Climbing System) 거푸집'을 적용했다.

◇다국적 회사 참여한 작품 = 현장은 롯데건설 외에도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한 다국적 기술이 집약됐다.

75만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한 토목설계는 영국의 에이럽(Arup)사가, 곡선미를 살린 타워의 건축 설계는 미국의 초고층 전문 건축설계 업체인 KPF사가 각각 맡았다. 또 미국의 LERA사는 구조 설계를, TT사가 구조 검증을 담당했다.

아울러 강풍을 견디기 위한 검증은 캐나다의 RWDI사가 책임졌다. 건물 외벽의 커튼월은 일본의 릭실(Lixil)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컨설팅은 미국의 CDC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롯데월드타워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초고층 장비에도 세계적인 업체가 참여했고, 400여개의 국내 협력업체도 힘을 보탰다.

◇친환경 녹색 복합 기술 적용 = 롯데월드타워는 우리 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각종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완공된 롯데월드몰은 국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했고, 롯데월드타워는 완공 시 취득예정이다. 세계적인 건물답게 미국 친환경 인증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은 골드(gold) 등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건물의 냉난방과 관련해 건물 부지 지하 200m 깊이에 파이프를 설치,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이용 냉난방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1200톤 규모의 중수 처리시설 및 1900톤 규모의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는 등 물 재활용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풍력발전, 연료전지, 태양열 급탕설비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초공사 콘크리트, 부르즈 칼리파 2.5배
순간 풍속 80m/s 견디는 내진 설계 적용
인공위성 측정정보 받아 초정밀 오차 차단
국내 이어 美 친환경 인증 '골드' 등급 목표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 풍력발전 등도 도입

◇세계 초고층 시장 규모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약 560조원 규모의 세계 초고층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롯데월드타워 수행으로 초고층 첨단기술을 축적하고, 초고층 전문인력 확보로 초고층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초고층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까지 참여한 최초의 건설사로서 향후 초고층 프로젝트 발주자에게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와 개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프리 컨스트럭션(Pre-Construc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해 현재 초고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 중국, 아시아 등의 초고층 시장과 롯데그룹이 이미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초고층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초고층 건립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며 "향후 국내외 초고층 건립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시행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월드타워 전경. 준공되면 123층, 55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사진제공 롯데건설

김진 롯데월드타워 현장소장

3.67도 기운 경사벽체 고난위 시공
철골 부재 3차원 입체설계로 극복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롯데건설의 김진 롯데월드타워 현장소장(상무)은 처음 현장을 맡았을 당시 걱정이 앞섰다고 털어놨다. 김 소장은 지난 2010년 8월 13일 잠실제2롯데월드현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까지 건설현장 경험이 20년이나 되지만 5년 전 잠실현장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초고층시공 경험이 전혀 없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각계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부단한 노력으로 보충해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를 시공하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초고층 빌딩인 만큼 코어월(중앙 구조물)과 커튼월(건물 외벽)의 시공이었다. 이 타워 코어월은 45~67층까지 동서남북 방향 각각 2.20~3.67도 기울어져 있고, 커튼월은 31~76층까지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각 0.13~5.5도 기울어져 있다. 공사 난이도가 일반초고층 건물에 비해 2배 이상 어렵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와 같은 경사로 코어월 경사벽체, 매층 철골 부재 크기 다양성, 좌·우·높이 다양한 변화에 따른 제작 및 설치의 어려움, 커튼월 유니트(unit)수가 전체 2만 1000장 중 1만7000장이 똑같은 규격이 없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당사 직원들이 수십 차례 기술 회의를 통한 3차원 입체설계를 진행해 부재 제작 및 설치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초고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사자재 양중이라고 생각한다. 양중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가운데 타워크레인, 공사용 호이스트, 엘리베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건물의 형상이 경사로 올라가고 상부로 갈수록 바닥면적이 줄어들어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설치가 어려워 건물 외부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는 타입을 국내 최초로 설치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후배들에게 '덕'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고서 주역에 나오는 말인 '자강불식 후덕제물'이라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덕을 쌓고 인성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후배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며 덕을 앞세워 발전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녹색기후기금·세계銀 등 둥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기획도시를 가다

⑤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잇따라 들어오고 교육여건이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몇 년 새 확 바뀌었다. 사진은 송도 국제도시 전경(왼쪽)과 동북아무역타워.

한때 '유령도시'로 불렸던 송도국제도시가 '국제기구 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데다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송도에 자리를 잡은 국제기구는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를 비롯해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ISDR) 동북아사무소,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모두 13개에 달한다. 송도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기구의 입주뿐만 아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벗으면서 현재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붙은 단지도 눈에 띈다. 송도가 이같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기구 13개…기업도 속속 입주
경제자유구역 중 외자유치 1위
인구 내외국인 합쳐 9만명 육박
아파트 매매가격 작년보다 8.7%↑
분양권 억대 웃돈 '부동산 열풍'

◇ '고담시티'에서 '국제기구타운'으로 180도 변신=송도국제도시 혹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 인프라를 배후로 지어진 경제자유구역(FEZ)이다. 송도가 속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외자 유치가 활발해 전국 8대 경제자유구역 중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 실적 1위를 유지하는 곳이다. 지난해 IFEZ가 거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7억1400만 달러로 이 중 송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에 다다른다.

이런 외자 유치에 힘입어 송도에는 지난 2006년 이후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A-WEB),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유엔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 사무소, 국제상거래위원회(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ISDR) 동북아사무소 등 모두 13개의 국제기구가 둥지를 틀었다.

국제기구의 집적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송도는 지난 2012년에만 해도 '유령도시', '고담시티'라는 이름이 따라붙었다.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시선을 잡아끄는 조형물들이 도시에 가득했지만 정작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GCF 사무국과 세계 최대 국제 금융기관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국내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송도 오피스 임대시장 역시 절반 넘던 공실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먼저 입주한 갯벌타워의 공실률은 15%로 벤처기업협회, 명산중공업 등이 입주해 있다. G타워는 국제기후기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유치로 공실률을 0%까지 낮췄다. 동북아무역타워 역시 공실률이 39%로 떨어졌다.

송도에 신혼집을 마련한 부부는 "2012년에만 해도 송도에 와 보고 유령도시인 줄 알았다"며 "인프라가 갖춰지고 국제기구·기업들이 입주하고 교육여건 역시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몇 년 새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 인구는 내국인 8만5902명, 외국인 1960명으로 총 8만7862명에 이른다. 2007년 2만3621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 송도에는 미분양이 없다? 신규 분양권 프리미엄만 '억'대=인구 증가와 더불어 송도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미분양 무덤'의 대표적 도시로 불리던 송도였지만 현재 송도의 미분양은 '0'가 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송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8.7% 오르면서 서울(4.6%)과 인천(5.1%)의 상승폭을 웃돌았다. 아파트 분양권에도 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분양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당시 3.3㎡당 1250만원 선으로 책정돼 전용면적 143㎡의 경우 분양가 7억7000만원대로 형성됐다. 같은 면적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9억5300만원으로 프리미엄만 1억8300만원이다.

송도 오렌지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거래보다 분양권거래가 요즘 더 활발하다"며 "송도 전체적으로 분양권에 3000만~5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고 말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교육여건이 뛰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입을 모은다. 송도에는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 채드윅 국제학교와 최근 개교한 포스코 자사고 등이 있다. 내년 3월에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송도에 위치한 인천해송중학교는 올해 전국학력향상 평가에서 인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송도에 가면 ○○○이 있다… 센트럴파크, 커넬워크 등 이국적 풍경'눈길'=송도의 이 같은 분위기 반전 동력에는 송도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들이 있다.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면서 기존 도시들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각종 공간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송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파크는 바닷물이 흐르는 국내 최초의 공원이다. 4㎞가량 떨어진 서해 바닷물을 끌어와 총 면적 41만1324㎡, 연장 1.8㎞, 최대폭 110m에 이르는 인공수로로 만들어진 이곳에는 12인승 수상택시도 운행된다.

경기도 일산에서 이곳을 찾은 한 방문객은 "센트럴파크 아래에 지하주차장이 있어 주차도 편하고 무엇보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으니 외국에 온 기분이다"고 말했다. 센트럴파크 앞에는 지하 3층~지상 68층, 높이 305m의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가 독특한 외관을 뽐내며 서 있다.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또 한 곳은 커넬워크다. 수로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유럽식 건물의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름 붙은 각 동 건물에는 총 340여 개의 매장이 입점했다. 지난 2013년 이랜드 리테일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커넬워크 대부분을 약 10년 장기 운영할 수 있는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주말 평균 1만5000여 명이 찾는, 송도국제도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이 외에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 한국뉴욕주립대 학교 송도캠퍼스,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등 4개 대학 캠퍼스로 조성됐다.

정경진 기자 jungkj@



송도국제도시는

'고담시티' 오명서 강남 못지않은 부촌으로

녹지율 30% 달해 조성된 공원만 22곳
인구 25만명 수용… 새 교육특구 부상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송도의 미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모래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공섬이었다. 그러나 현재 인공 섬 위로 현존 국내 최고층 빌딩인 동북아무역타워 등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녹지율이 30%인 이 도시는 조성된 공원만 22개소에 이른다. 업무지구와 함께 녹지공간도 계획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뜻이다.

또한 송도 신도시는 11개 사업지구로 나뉘어 있다. 주택 10만1000여 가구를 건설해 인구 25만9000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계획됐다. 전체 계획 물량 중 현재까지 공급된 가구 수는 4만여 가구로 이 중 2만4000가구가 입주했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송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국제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인프라가 개선되고 주거환경 등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사냐고 물으면 인천이라고 안 하고 송도라고 말한다. 그만큼 송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불과 1년 전까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받았지만 현재 강남구를 뛰어넘는 부촌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교육 특구로 떠오르면서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붙었다.

지난 2012년 분양한 일부 단지는 대형 평형임에도 프리미엄이 1억8000만원이 넘게 붙었다.

송도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단지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로 세무조사를 나올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며 "송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달아올랐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송도국제도시 사업개요 ※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구분	내용
위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면적	53.4㎢(1615만평)
사업비	21조5442억원
사업기간	2003년~2020년 (1단계: 2009년, 2단계: 2014년, 3단계: 2020년)
계획인구	25만9669명(10만1780가구)
계획현황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 신항 등

송도 B공인중개사 관계자 "3공구에 공급된 '더샵 마스터뷰'는 1년 넘게 미분양 상태였지만 현재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에도 송도에서 2300여 가구의 신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더샵에서 공급할 예정인 1020가구를 포함해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886가구, 주상복합단지 386가구 등 예정된 물량은 2292가구 규모다.

분양권시장의 과열과 공급과잉 등의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송도 부동산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잠실로 연결되는 GTX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이지만 확정될 경우 교통 호재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송도는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자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며 "도시 인프라 형성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유찰 물건’ 의심부터… ‘권리 분석’ 소홀하면 땅치고 후회

실전경매 A to Z

7~8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수기’로 불린다. 아파트 경매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수기로 통하지만 올 여름 아파트 경매 시장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낙찰가 100%를 넘긴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실수요자로 갈아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몰려들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최근 대형 서점에는 경제서적으로 경매 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경매왕이 된 사례를 엮어서 만든 책부터 이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쓴 책들까지 다양하다. 특히 경매시장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도 주목받으면서 관련 책들은 경제서적 판매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열풍이 불어닥친 경매시장, 경매시장의 A부터 Z까지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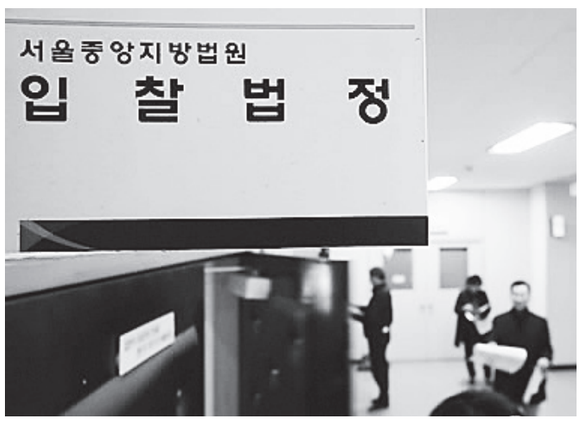
◇경매란 무엇인가=우선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의 한 형태다. 최근 열기가 뜨거워진 부동산 경매는 토지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와 토지 위에 세워진 정착물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경매가 아닌 나머지는 동산 경매로 재산권,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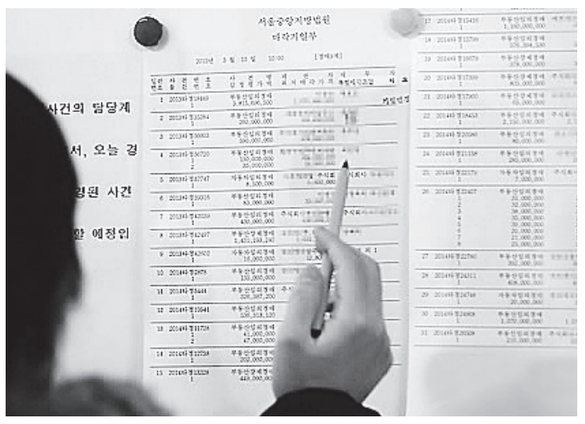
이 경매는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뉜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돼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 경매를 실시해 보통 법원경매를 이야기한다.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경매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서를 작성해 경매접수를 해야 진행될 수 있다.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됐는지를 심사한 후 구비가 됐다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가 된 경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약 이틀이 걸린다.

경매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7일 내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을 결정해 이를 공지한다. 이후 경매 준비를 진행하고 매각 기일 14일 전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매각과 매각결정기일 등을 적은 내용을 공고한다.

통상적으로 경매 신청 후 매각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5~6개월이 소요된다. 매각기일이 되면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은 종결된다.





주택경매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왼쪽). 일부 응찰 예정자들은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 92%

100% 넘긴 고가낙찰 속출 ‘과열’

법원감정가 고평가된 경우 많아

시세보다 30% 싸야 수익성 보장

강제집행비용·임차인 이사비 등

취득후 추가금액 몰랐다 낭패도

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고 매각이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해당 응찰자에게 매각 허가를 해야 한다. 허가를 받았다면 매수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잔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즉시 인정받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된다.

◇쉽다고 방심하는 건 금물, 꼭 알아야 할 사항=법원 경매 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먼저 감정가를 무턱대고 맹신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매각가가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경매는 시세보다 20~30%는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수익성이 보장된다.

권리관계 분석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차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다.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낙찰 후 부대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경매는 일반매매에 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간다. 취득 시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비우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비용과 이사비 등의 추가 금액이 들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경매시장은 어떨까?=올 여름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은 유난히 뜨거웠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2.1%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7년 92.3%에 근접한다. 지난해 85.1%보다도 7.1%포인트 높다. 서울에서는 이미 아파트 낙찰가율이 93.3%까지 치솟으며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도 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8.6명보다 증가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올들어 4개월 연속 90%를 돌파했다. 8월 2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92.6%로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파트 경매 물건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거시설은 총 717건으로 이 중 350건이 낙찰됐다. 2010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건수다. 주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거래 증가와 채권자들이 아파트 물건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매매시장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아파트 물건이 감소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전세난이 가을 이사철에도 반복되면서 올 하반기 주거시장은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i@

수익형 부동산도 경매 열풍

“은행에 맡기느니” 경매시장 돈 몰려… 평균 낙찰가율 70%

〈9년1개월만에 최고〉

분양시장의 열기와 함께 달아오른 주택 경매시장이 최근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경매 낙찰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7월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살펴본 결과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업무상업시설은 전월에 비해 무려 5.5%포인트 상승해 7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 75.9%를 기록한 이후 9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낙찰률 역시 30.7%로 지지옥션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역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볼 수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뒀다면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에 발맞춰 상가, 아파트상가, 근린상가, 오피스텔, 대형 상가 등으로 대표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통계를 살펴보면 낙찰가율은 2010년 53.1%에서 올해 7월말 65.4%까지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2.4명에서 2.8명으로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다.

그 동안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업무 및 상업시설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렵고 영업권의 인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들이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상가·오피스텔 등

낙찰률 30.7% 조사 이래 최고치

안정적 소득·권리금 부담 없지만

유치권 등 권리관계 다툼 소지도

개인은 경·공매 펀드 투자 바람직

실제로 시세뿐만 아니라 물건마다 개별성을 살펴야 하고 주변 임대료 수준이나 공실률 등 따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경매로 넘어오면서 밀린 공용 관리비 등이 주택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면밀히 살필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취득가액의 부담이 작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평균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7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 상가 분양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시세차익을 일부 볼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상가를 운영할 경우 상가 거래에서 통용되는 권리금 등의 부담도 없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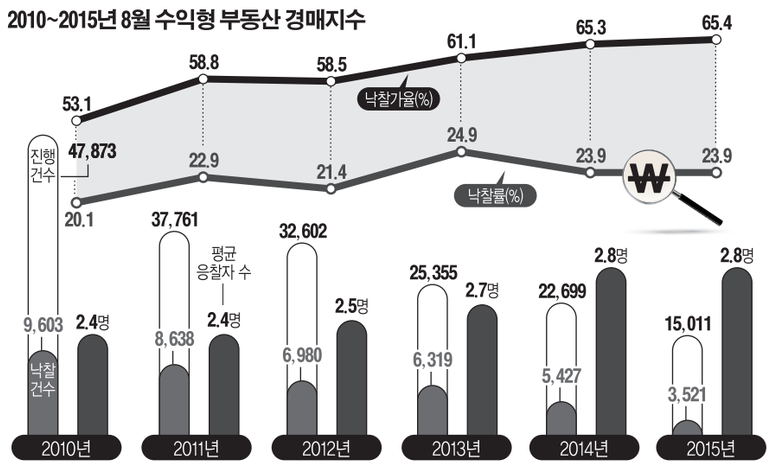
여기에 유치권 등이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 등의 경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뒷받침돼야 하며 유치권과 같은 다툼의 소지가 많은 권리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투자하기 벅찬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2~3배에 이르는 자산 차액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사업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경·공매 펀드나 리츠 등 전문가들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공매 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있고 운용 수익 및 매각 차익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2010~2015년 8월 수익형 부동산 경매지수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일생에 한번은 역사에 미쳐라!

유럽을 만든 사람들

현경병 지음 | 504쪽 | 16,000원

망원경으로 유럽사 전체를 훑으면서도
현미경으로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속살까지 들여다본다!

1.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가 아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사는 서유럽의 문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유럽의 라틴 문명일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명은 지중해 문명이자 서아시아 문명이기도 하다.

2. 유럽의 고대, 중세, 근대 역사는 유럽 전체의 역사가 아니다
고대 문명사는 남유럽에만 해당하고, 중세는 주로 서유럽에 해당하며, 동유럽과 일부 남유럽에서는 15세기까지 동로마 제국이 유지되어 중세가 따로 없다. 근대는 근대화를 전개한 서유럽과 일부 남유럽에 해당하는 별도의 현상이다.

3. 유럽에 독자적인 문명은 없다
유럽이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하고 인류를 이끌어온 듯이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유럽인(백인), 언어(알파벳), 종교(기독교), 문명(지중해) 등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건너가 형성된 것이다.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고수익 선박펀드 시대 저문다

'하이골드오션선박펀드' 최근 1개월 -43.83%
벌크선 가격 폭락·보유 선박 반값 처분 여파
세제혜택도 올해로 종료… 투자자들 한숨만

고수익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던 선박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세제혜택도 올해로 종료돼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하이골드오션선박특별자산1(수익권)종류A'의 지난 1개월 수익률은 -43.83%, 설정 후 수익률은 -19.52%다.(기준일: 2015.8.28) 이 펀드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기준가격이 1013.98원으로 약 1.3%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21일 기준가가 566.65원으로 43% 이상 급락했다.

하이골드오션선박펀드가 급격히 손실로 전환한 것은 보유 중이던 선박을 반값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펀드 설정 당시 한 척당 3220만 달러에 구입한 벌크선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각 계약시에는 한 척당 1500만 달러 수준에 그쳐 손실이 발생했다. 선박펀드의 경우 장부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7월 매각계약이 체결됐지만 잔금 등 납입이 완료된 지난달 21일에서야 한꺼번에 손실이 반영된 것이다.

하이골드오션선박펀드는 선박펀드 시장에서는 드문 공모형 펀드다. 소수·거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자의 입김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해당 선박펀드 투자자는 2800여명으로 이 중 일부는 회사 측에 선박펀드의 만기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요구해야 성사되는 수익자총회는 열리지 못한 채 청산이 진행됐다.

회사 측은 "연 8%씩 분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박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면 총 손실은 7.6% 수준"이라며 "일부 투자자의 만기 연장 건의가 있었지만 향후 선박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원래대로 청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바다로3호 펀드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 2006년 설정된 바다로3호펀드는 공모금 88억6000여만원과 대출금 약 356억원을 더해 508억원(4622만달러) 상당의 선박을 구입했다. 이 선박을 창명해운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왔지만 만기 시점에서 선박의 가격이 구입가의 4분의 1 수준인 1100만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원리금 변제와 주주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바다로3호는 펀드의 존속기한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내년 청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박스피 증시에서 대체투자로 각광받았던 선박펀드가 수익은커녕 원금보장도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는 가운데 선박펀드에 제공되던 세제 혜택도 올해로 종료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체투자 담당 운용역은 "선박펀드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묻어둬야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가입수준과 기간을 낮춘 공모형 대체펀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증권사 코넥스기업 분석 보고서 비용 지원하겠다"

임종룡 위원장, 인센티브도 고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상장기업 및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보고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국거래소가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코넥스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출범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인큐베이터라는 별칭과는 달리 그간 정보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 12건, 올해도 34건이 나온 수준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투자정보 확대를 위해 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리서치 기관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코넥스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단 상장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은 거래소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코넥스 기업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없었는데 지난 7월 코넥스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지점에서 코넥스에 어떤 종목이 좋냐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과는 달리 볼 만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창업한 회사들을 신속하게 코넥스 시장으로 상장시킬 때 걸림돌이 되는 외부감사 및 지분보유 요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다운 기자 gamja@



"베트남 시장 뜬다" 한국투자증권 '신짜오베트남펀드랩'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 시장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신짜오베트남펀드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최초로 '베트남펀드'를 선보인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에서 베트남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된 것은 9년 만이다.

'한국투자 신짜오베트남펀드랩'은 국내 운용 중인 베트남 펀드를 대상으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머징마켓팀과 한국투자신탁운용 호찌민 현지법인이 공동으로 자산배분 전략과 펀드리밸런싱, 사후관리까지 전사적 종합관리 역량을 집중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투자 신짜오베트남펀드랩'은 한국운용, 동양운용, 미래에셋운용 등에서 베트남주식형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며 현금성 자산은 주식자산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으로서 주로 국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크라우드펀딩 관리기관 선정… 예탁원 웃었다

유재훈 사장 전폭적 지원… 코스콤과 각축전서 승리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유재훈〈사진〉 예탁결제원 사장의 주문이 이뤄진 만큼 예탁결제원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증권 발행 및 투자금 모집 한도, 자금모집인의 발행한도 등을 관리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을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인적·물적 요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등 일반평가(95%)와 인프라 관련기관 선호도 평가(5%)를 실시했다.

예탁결제원은 코스콤과 마지막까지 관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각축전을 벌였으나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투자자와 증권사, 거래소를 연결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재훈 사장이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관리기관 선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도 예탁결제원이 이번 관리기관에 선택된 이유로 꼽힌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관리기관 선정으로 크라우드펀딩 수수료를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핀테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리기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관리기관 TF 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12월 말까지 마무리지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신증권 '밸런스 공모주 메자닌' 일임형 랩 판매

약정 수익과 자본 수익 '동시에'



대신증권이 메자닌 증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을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갖는 메자닌(Mezzanine) 증권과 IPO·유상증자 등 공모주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일임형 랩 상품인 '대신[Balance] 공모주 메자닌 랩'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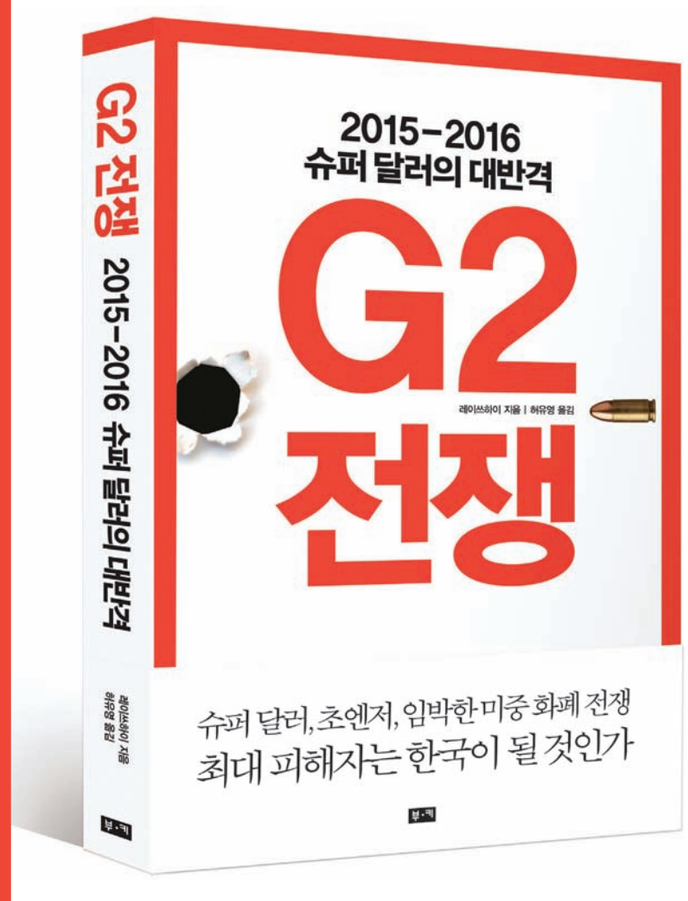
메자닌 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본래 채권이지만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통해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주식이 하락할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보유하며, 주식 상승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상장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 증권 및 국내채권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재발행되는 분리형BW에도 투자한다.

또 IPO·유상증자 등 공모주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도 추구한다. 하이일드(high yield)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해 연간 공모주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남형민 대신증권 랩사업부 이사는 "경기 변동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약정 수익과 자본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미·중 화폐 전쟁 초읽기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온다

슈퍼 달러, 'G2 파트너' 중국 자본 시장을 정조준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IMF의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2004년 10월)

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 G2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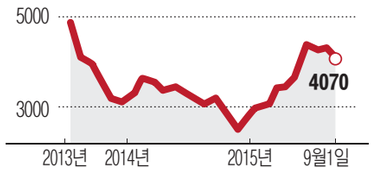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14,800원 부·키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삼지전자, 통신장비·전지 등 사업마다 '고주파'



삼지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멀티밴드 중계기 대만 납품…日선 필드테스트 진행중
신사업 ESS·올해 인수 에스에이엠티 시너지효과 기대

삼지전자가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전지 신사업 및 화웨이 통신규약을 수용하는 국산화 장비 개발도 순항 중이다.

2일 삼지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상반기부터 대만 TWM 사업자에 멀티밴드 중계기를 납품하고 있다. 일본 JMCIA 사업자에 납품하기 위한 멀티밴드 중계기도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필드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삼지전자는 또 화웨이 CPRI를 활용한 고기능 중계기를 개발해 작년 11월부터 상용화 및 납품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LG유플러스로부터 화웨이의 통신 규약인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수용 장비 국산화 공동개발 제조사로 선정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난 7월 화웨이 CPRI를 활용한 멀티밴드 중계기를 개발해 상용화했고, 하반기부터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솔루션(ES)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첫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고객사 물량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 올해도 신규 물량 입찰 참여 및 수주활동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기용으로 개발한 배터리 팩 제품이 개발 및 양산이관을 완료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진행해 기존 충방전시스템 매출과 더불어 ESS 매출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인수한 에스에이엠티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에스에이엠티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2561억원, 영업이익은 9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김영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지전자로 피인수 이후 1분기 실적이 호조세였으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 영향으로 앞으로의 호실적 지속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며 "하지만 2분기 안정적 실적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높은 차입금 부담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은 내년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유통업체 특성상 타 휴대폰 부품업체 대비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라고 내다봤다.

송영록 기자 syr@

코라오홀딩스, 신차 CKD사업에 '쾌속질주'

상반기 순익 작년보다 86% 늘어…동남아서 러브콜 쇄도

코라오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2262억원(2억 580만 달러), 당기순이익 285억원(2594만 달러)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반기 대비햐 매출액 기준 25.2%, 당기순이익 기준 86.4% 증가한 수치(원화 기준)이다.

라오스 국가 특성상 2분기가 우기에 해당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라오홀딩스가 이와 같은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차 CKD 사업부의 견조한 매출 호조가 가장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라오홀딩스는 2013년 하반기 1톤 트럭으로 신차 CKD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총5개의 모델라인업을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2102대의 판매량을 올렸던 신차 CKD 사업부는 올해 동기 3474대를 판매하는 사업부로 성장했다.

코라오홀딩스 전체 매출 내에서 신차 CKD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8%로 시작해 지난해 18.7%, 올해 상반기 28.46%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차 CKD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거둔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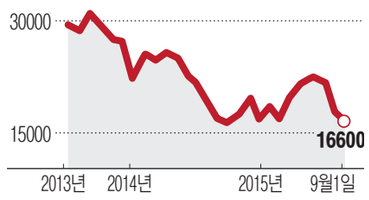
또한 신차 CKD 사업부는 앞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인근 국가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코라오 신차 CKD차량의 높은 품질 및 뛰어난 디자인이 관련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동남아시아 타국가에서도 수출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CKD 차량을 통한 코라오홀딩스의 매출 성장은 더욱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마치고 곧 자체브랜드 차량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타이밍을 앞두고 있다"며 해외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코라오홀딩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소망화장품 주주간 다툼에도 지분율 96%까지 늘린 KT&G

유증참여로 497억 출자
'2대주주' 강석창 前대표 신주발행금지 요청했지만
"적법한 절차…문제 없다"

KT&G가 소망화장품 유상증자를 둘러싼 주주간 법적 다툼에도 자금을 출자해 지분을 96%대로 확대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상증자로 조달 자금을 화장품 사업 확대에 투자한다는 기존 계획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G는 소망화장품이 실시한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해 497억5493만원을 출자했다. KT&G의 지분율은 기존 50%에서 유상증자 참여 후 96.86%로 증가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실시하기에 앞서 KT&G는 기존 소망화장품의 주주와 갈등을 빚었다. 소망화장품의 창업주이자 2대 주주인 강석창 전 대표가 이달 초 인천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강 대표는 소망화장품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유상증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주 발행을 금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KT&G의 지분율은 최대 98%대까지 올라서는 반면 강 대표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할 시 지분율이 1%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 대표가 이번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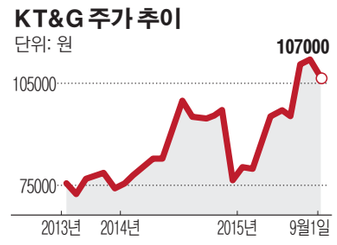
소망화장품은 이러한 법적 싸움에도 KT&G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회사는 이 자금을 제2의 도약을 위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화장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소망화장품은 올해 3월 사옥을 서울 봉천동 보라매 대교타워로 이전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등기 임원을 모두 교체하는 등 새롭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망화장품은 해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올해 초 미얀마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재정비하고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아세안(ASEAN) 10개국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아시아 최대의 화장품 유통업체인 SASA를 통한 아시아 전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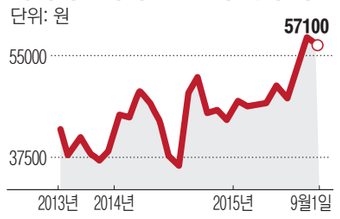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브랜드력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국내 화장품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중국, 동남아 등 화장품 수출을 확대하는 데도 자금을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KT&G 주가 추이
단위: 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가 추이
단위: 원



YG엔터·中텐센트 '모바일 게임' 협공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 서비스 기업 텐센트와 게임 제휴를 맺고 공동 사업을 한다.

2일 YG에 따르면 텐센트 게임이 자체 개발한 2015년 하반기 모바일 게임 기대작인 '전민초신'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YG의 대표 아티스트인 빅뱅이 '전민초신'의 전속 모델로 낙점돼 활동하면서 양사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전민초신'은 세계 최초 5대5 실시간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게임 장르 중 하나로, 전세계적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가 대표 게임) 모바일 대전 게임이다.

이날 정식 론칭하는 '전민초신'은 론칭 전 아무런 마케팅 진행 없이 이미 iOS 무료 다운로드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CBT 진행 시부터 유저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오리엔트바이오, 포터블 실험동물랙 개발

'마이크로플랙스 미니' 내놔
높낮이·케이지수 조절 가능
소규모·이동·비용문제 해결

오리엔트바이오는 신개념 포터블 형태의 미니 IVC랙(Individual Ventilated Cage)인 '마이크로플랙스 미니'를 최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실험동물랙의 소형화를 통해 실험연구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회사 관계자는 "마이크로플랙스 미니에 학계 및 업계 실험 관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 실험동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험동물들을 위한 IVC랙은 주로 생물·환경적으로 보호된 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대형 케이지 시스템이 주를 이뤘다. 이 때문에 설치 공간, 관리 및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소규모실험 연구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마이크로플랙스 미니는 대규모 랙이 필요 없는 소규모의 실험이나 비용의 문제 또는 이동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야 했던 많은 연구자들의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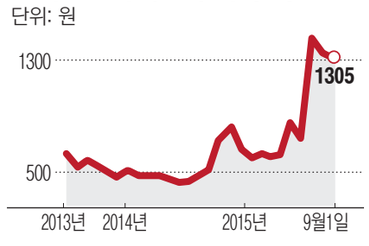
마이크로플랙스 미니는 높낮이 조절뿐만 아니라 3X3 배열의 9개 케이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3X9 배열의 27개까지 케이지 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원이 있는 곳이라면 좁은 장소에도 상관없이 어디에나 비치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외부는 부식성이 강한 스텐레스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내부 부품들도 소형화 및 모듈화해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모든 케이지 내부의 온·습도, 압력 조절과 측정, 순환 풍량까지 완벽하게 제어해 최적의 실험동물 관리 환경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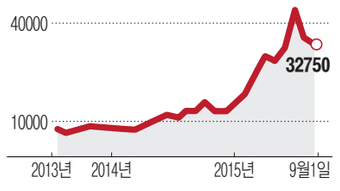
오리엔트바이오 관계자는 "기존 케이지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신개념의 제품으로써 폭넓은 시장성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오리엔트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다원시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의료 중입자가속기' 다원시스 개발참여

핵융합발전 및 가속기 전원장치 개발 선도기업 다원시스는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이 주관하는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공동개발 및 기술 사업화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난치성 암을 극복하고 글로벌 가속기 시장에 진입하고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주요장치의 공동개발을 통한 제작 및 운영기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7년 말까지이며 환자 치료는 2018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총 사업규모는 1950억 원이며 건립예정지는 부산시 기장군 좌동리이다.

다원시스의 투자 제안금액은 총 장치 제작 제안금액의 약 4분의 1 수준인 150억 원으로 3년간 150억 원을 KIRAMS에 납부하고 KIRAMS는 투자금 전액을 본 사업에 사용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판도라티비 켠 요즈마그룹 "글로벌시장 가능성 확신"

"세계 첫 동영상 구축 노하우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주목"

판도라티비가 요즈마그룹과 공동으로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판도라티비는 창조경제의 핵심 벤치마킹 모델로 거론되는 요즈마그룹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요즈마 그룹은 1992년 이스라엘에서 출범한 글로벌 벤처캐피탈이다. 벤처 기업에 단순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요즈마가 독자 개발한 TI(Technology Incubator) 요즈마 캠퍼스(YOZMA CAMPUS) 시스템을 통해 초기 벤처를 글로벌 기술가치 평가를 하고 직접 인큐베이팅 한다. 현재 20개 이상의 벤처들을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특히 요즈마 그룹은 판도라티비가 동영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높은 기술력에 주목, 한국에 설립한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판도라티비의 핵심 서비스인 KM플레이어와 모바일 라이브방송 플럽(Plup)이 해외증권시장 상장은 물론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은 "판도라티비는 유튜브보다 먼저 설립돼 혁신적인 동영상 기술로 세계 최초로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3번째로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론칭했다"며 "유료모델을 최초로 적용한 높은 기술력을 주목,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익 판도라티비 대표는 "지난 11년동안 한눈팔지 않고 동영상 플랫폼 분야에서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요즈마그룹이 판도라티비의 높은 기술력에 주목해 전략적 사업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동영상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돼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제룡전기, 철도공단 200억대 입찰 도전

가스절연개폐장치 개발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달 철도용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대규모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룡전기가 제품을 개발 완료한 뒤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룡전기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안산 보급 변전소 등을 합쳐 200여억원대의 29kV급 GIS 입찰을 한다"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달 초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적용할 29kV급 GIS의 구매발주를 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철도용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발주다.

29kV급 GIS는 유럽과 동남아 철도시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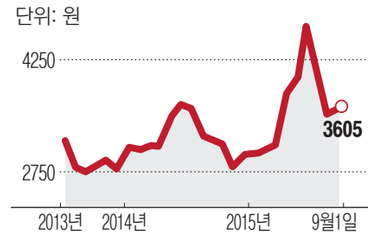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제룡전기를 비롯해 서전기전, 광명전기, 선도전기 등 4개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발주는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여러 곳인 만큼 해당 입찰을 공구를 나눠 진행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발맞춰 총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9월 입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제룡전기 주가 추이
단위: 원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2006~2015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 세탁기 부문 NCSI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

세탁기를 다시 발명하다

세계 최초, LG가 세상에 없던 이층세탁기를 선보입니다
분리세탁, 동시세탁, 공간절약, 시간절약!
이제 세탁은 놀랍도록 편해졌고, 당신의 시간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깜짝 놀란 세탁기의 혁명, 트롬이 또 한번 해냈습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이미 15kg이상 트롬을 갖고 계시다면
하단에 미니워시만 구입해서 설치해보세요
당신의 세탁기도 이제 이층세탁기가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 | 분리세탁 | 별도 세탁이 필요한 옷이나 적은 양의 빨래는 나눠서 사용하세요 | 동시세탁 | 위 트롬 아래 통돌이 - 두 대의 세탁기로 동시에 세탁하세요
| 공간절약 | 세탁기가 위 아래로 결합되어 있어 한 대의 공간만 차지합니다 | 시간절약 | 두 번 나눠 세탁할 필요가 없어, 세탁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LG TROMM 트윈워시

트윈워시 구매고객 대상 캐시백 행사 ■하나. 트윈워시 세트(트롬플러스 + 미니워시) 구매 시 캐시백 20만원 혜택 | ■둘. 트롬플러스 또는 미니워시 구매 시 캐시백 10만원 혜택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확인하세요